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70.39	↓ 코스닥	725.82
	(+6.91)		(-1.88)
↓ 금리 (연율)	2.596	↓ 환율 (원/달러)	1453.30
	(+0.031)		(+6.50)

연체 눈덩이 자영업자 ‘곡소리’... 여야는 ‘땀질처방’만

폐업공화국 위기

지지부진 추경 논의

고금리에 내수침체 길어져 연체 개인사업자 35% 증가
 韓 자영업자 비중 OECD 5위

여야 현금 풀고, 세금 깎고
 단기적 포퓰리즘 정책 급급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가 550만명으로 전월보다 7만4000명(1.33%) 감소해 지난 2023년 1월(549만9000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뉴시스

거리가 한산하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고금리 환경과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 소비 위축 심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소비가 위축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노동가능 인구의 상당수가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다.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침체가 길어지자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10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년 전보다 35% 증가한 15만5060명이었다. 이들이 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총 30조7248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3.2%에 달한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5위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위권에 해당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세 배를 웃돌고 일본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이다.

정치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한다. 최근에도 여야는 추경안(추경)안 논의를 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760만명에 이르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에너지 공과금 바우처 및 200만원 상당 시설·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이 3조원 정도 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만큼 더 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수퍼 추경’ 대신 ‘핀셋 추경’을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핀셋 추경’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지역화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원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과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등의 예산이 담겨 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내수 회복·물가 안정·경기 부양 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을 중심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2면에 계속>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550만명대까지 감소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명까지 줄어든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말 다시 급감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1년 전보다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에 불과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금융위기 때 보다 더 힘들다’ 자영업자 두달새 20만명 폐업

1월 기준 자영업자 550만명
 재료비·인건비·임차료 부담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폐업 결정을 내린 자영업자 수가 최근 2개월간 20만명 넘게 늘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자영업자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70만명에서 20만명 이상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과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과 2009년(574만명)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550만명대까지 감소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명까지 줄어든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말 다시 급감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1년 전보다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에 불과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社告

메트로경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힘든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25일(화)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가는 난세(亂世·힘든 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재테크 전략이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고령화시대 재테크, 증·상속세 절감, 부동산 투자 전략 등을 모색합니다.

- ◆ 행사명 : 2025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 일 시 : 3월 25일(화) 오후 2시~5시1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30분~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韓, 車생산 7위로 하락... 美 관세로 10위도 불안

KAMA, 車생산 현황 보고서 내수한계·경쟁심화 등 영향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규모가 내수 부진으로 2023년 세계 5위에서 지난해에 7위로 내려앉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10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9395만대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급감(-15.4%)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생산 감소는 도요타,

혼다 등의 품질 인증 문제가 벌어진 일본(-8.5%)의 생산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태국(-20.0%), 스페인(-3.0%), 한국(-2.7%) 등도 생산이 줄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3만대를 기록해 글로벌 7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대수는 증가(0.6%)했지만 내수 판매가 2013년 이후 최저치인 163만5000여대(-6.5%)로 떨어지면서 생산 규모가 줄었다.

지난해 세계 자동차 생산규모는 중국(3128만대)이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미국(1056만대),

일본(823.5만대), 인도(601.5만대), 독일(442.5만대), 멕시코(420.3만대)가 우리나라보다 상위 생산국에 올랐다. 특히 ‘톱4’ 국가들의 생산은 글로벌 전체 자동차 생산의 59.7%를 차지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내수 진작책과 수출 장려 정책이 연계되면서 1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KAMA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내수 한계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잠재 수요가 적어 올해 내수가 전년 대비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생산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올해 중국 업계의 세계 시장 지배력 강화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은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은 완성차 기업을 포함한 국내 제조 기업들의 해외 생산과 투자 확대를 가속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 약화로 글로벌 ‘톱10’ 생산국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이는 부품 등 전후방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韓줄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하늘이법 국회 통과 등 노력하겠다”
 ▲ 박찬대 “사퇴 거부 심우정,尹정부 검찰총장다 위... 책임 묻겠다” /사진 뉴시스

▲ 감사원, 상반기 중 공군본부 정기감사... 오폭 사고 직접 조사는 안 해
 ▲ 김상훈 의원 “대구 염색산단 잇단 폐수 유출 철저 조사”

▲ 與김장겸, ‘포털뉴스 공적책임법’ 발의... “포털, 뉴스 유통 책임 강화”
 ▲ 민주당 “극우세력, 현재 계시판서 불법 매크로로 여론 조작”

오가노이드사이언스, 태국에 재생치료제 ‘글로벌 전진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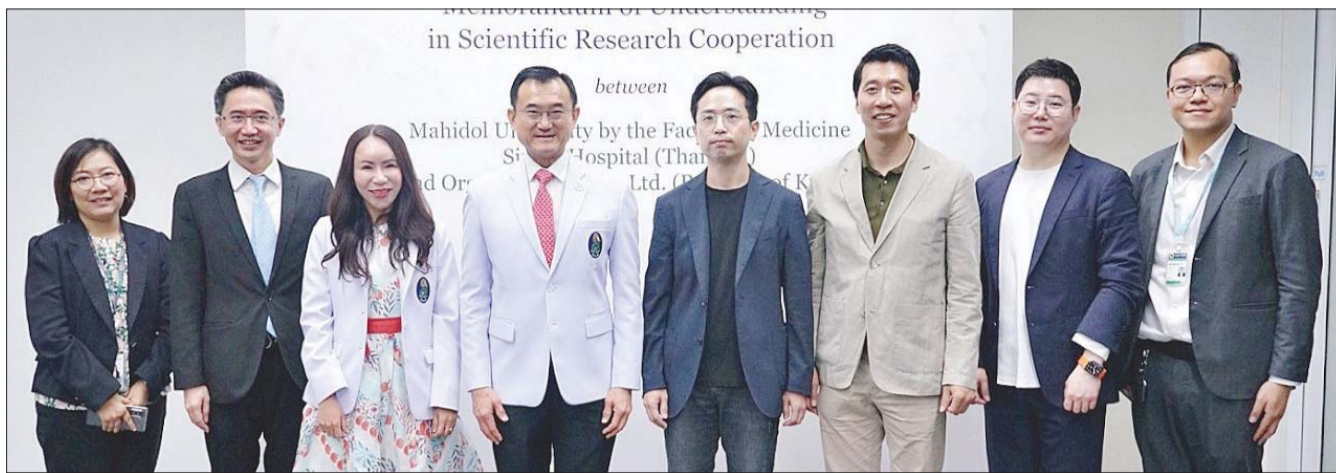
마히돌대학교 시리랏 병원과 맞춘 바이오기술·재생의료 도입 위해 태국 정부와 협력, 프로젝트 수행

오가노이드기반 재생치료제 선도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ORGANOID SCIENCES)가 태국에 재생치료제 글로벌 전진기지를 구축한다. 첨단 재생의료 관광으로 명성이 높은 태국을 재생치료제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태국 마히돌(Mahidol)대학교 시리랏(Siriraj) 병원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태국 내 합작 법인(JV)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주도할 인물로 태국 바이오 연구를 선도하는 솜폰나트 삼파트타와니치(Sompornnat Sampattavanich) 교수가 선정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腸) 재생치료제



태국에서 열린 마히돌대 시리랏 병원과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업무 협약식에서 시리랏병원 아피차트 아사와몽콜쿤(Apichat Asavamongkolkun) 시리랏 병원장(왼쪽 네번째)과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왼쪽 다섯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톰(ATORM)-C를 비롯한 다양한 오가노이드기반 치료제를 태국에 도입하고, 태국을 동남아 및 중동 시장을 아우르는 재생치료제 허브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은 연간 수백만 명의 해외 환자가 찾는 의료관광 허브로, 첨단 바이오·재생의료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2025년까지 글로벌

의료 허브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히돌대학교 산하 시리랏 병원과 라마티바디 병원은 중개 의학 연구를 선도하며, 태국 정부와 협력해 최첨단 바이오기술 및 재생의료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열린 ‘아세안-코리아 바이오 헬스 네트워크 데이 2025’에서 마히돌

대학교 총장과 태국 주요 병원 관계자, 한국 주재 태국 대사를 초청,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태국을 동남아 및 중동을 연결하는 재생의료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솜폰나트 교수는 “재생치료제 아톰-C의 개발에 태국 식품의약품(FDA)의

첨단재생의료 제품(ATMP) 규제 프레임워크가 매우 적합할 것”이라며 “오가노이드기반 재생의료 태국 바이오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치료제 도입을 넘어, 태국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바이오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태국 바이오산업 발전과 의료관광 시장 연계를 통해 동남아 및 중동을 아우르는 재생의료 허브 구축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베트남을 동물대체시험 허브로, 태국을 재생치료제 허브로 육성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에서는 혁신적인 동물대체시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의료관광과 연계한 재생치료제 상용화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홈플러스 “정산 문제 없어”… 대금 밀린 협력사는 “불안”

이마트 정산주기 평균 25일 내외
홈플러스는 납품 후 45~60일
일부 협력사, 주기 축소 등 요구

홈플러스 “정산주기 30~45일
주기 축소 관련해 논의는 없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대금 정산이 밀리면서 협력업체 사이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납품대금 정산 주기가 이마트, 롯데마트보다 길어 정산 지연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정산 주기가 평균 25일 내외이고, 롯데마트는 20~30일 것에 비해 홈플러스 정산 주기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상품을 납품받고 통상 45~60일 이후에 정산하는 흐름이라는 것.

대형마트업계의 납품 대금 정산 주기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관계자가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는 상품군, 계약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신선식품의 경우 거래 빈도가 많아 빠른 정산이 이뤄지는 반면, 일반 가공식품 및 공산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정산 주기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직매입, 위탁판매 등 계약 방식에 따라 서로 정산 주기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홈플러스 정산 주기가 더 긴 만큼 불안감을 느낀 일부 협력사 관계자는 납품 정산 주기 축소와 정산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금 미정산 상황에서 정산 주기가 긴 현재의 계약 방식을 지속하기 불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대금 정산 주기가 특별히 길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납품업체 대금 정산 주기에 대해 “정산주기는 평균(45일에서 60일이 아닌) 30일에서 45일이다”라며 “타 경쟁사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 대금 정산 주기 축소 요구에 관해서는 “현재 대금 정산 지급은 되고 있는데 (정산 주기 축소) 관련 논의되고 있는 바 없다”고 말했다.

대금 정산 주기 외에도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 납품업체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대금만 변제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라며 “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면 당장 운용할 자금이 없어진다. 이를 버티는 과정에서 또 대출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연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

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법원이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이 중단됐던 일반상거래 채권을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순으로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해 법원의 승인 없이 우선 변제되는 채권이며,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해 법원의 승인 후 변제되는 채권을 뜻한다.

추가 대출 이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도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법원이 회생채권 변제 허가 승인을 내린 것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업자, 인건비성 회생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며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계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인구 1만7432명 ↓… 2년10개월 새 최대폭 자연감소

행안부, 지난달 출생아 2만1225명 사망자 3만8657명 34개월 새 최대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 83.6% 기록

지난달 우리나라 인구가 최근 2년 10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다른 달 평균과 비교해 변동이 작았으나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전체 사망자 중 고령층이 80% 넘게 차지했다.

10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1225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출생 통계는 2020년대 들어 2만 선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사망자 수는 2022년 4월(4만985명)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많

은 3만8657명에 달했다. 출생 통계에서 사망 통계를 뺀 자연증감분(자연감소) 역시 -1만7432명으로 34개월 사이 가장 많이 줄어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사망자 수는 지난해 6월 2만 5554명까지 내려왔으나 8월 3만412명, 10월 3만1162명, 12월 3만1453명, 올해 1월 3만2605명 등 완만히 증가한 바 있다. 그러다 2월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2월 사망자(3만8657명) 중 65세 이상 고령층 사망자 수는 3만2340명이었다. 고령층 사망이 3만 선을 넘어선 것은 관련(연령대별) 통계 작성시 시작된 2023년 1월 이래로 처음이다. 지난달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비중은 83.6%를 기록했다.

한편, 고령층의 사망이 늘었지만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 20.2%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유엔(UN)이 규정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20.0%)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노인 비중이 0.2%포인트(p)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반해 15~64세 나이가 속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인 69.2%로 내려앉았다.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10년 전인 2015년 2월(73.2%)에 비해 4.0%p나 떨어졌다. 당시 65세 이상 인구는 12.8%에 머물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정치권 “경제상황 맞는 근본대책 제시를”

>> 1만 ‘폐업공화국 위기’서 계속

서울시도 올해 예산의 62.1%에 해당하는 24조6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대형사업 조기 추진 등에 쓰인다.

하지만 계엄 사태 및 탄핵심판 정국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추경 논의는 한 차례 열리고 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공전 상태였다. 여야가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추경 합의는 없었다. 10일 열린 세번째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됐다. 이런 가운

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폐업은 계속되고 있다.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여기에 담긴 해법은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진작 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문제다. 단순히 ‘현금 살포’만 하는 것은 포퓰리즘인데다 대중요법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생고는 20년 이상 지속된 상황인데, 전국민 소비쿠폰뿐 아니라 바우처 지급·지원금 집행 등은 초단기 대책으로 끝났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단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균형발전·고령화·실업·고물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15년후 가구 수 감소로 수요 ↓... 다주택 상속에 매물 증가”

부동산 투자, 이제 끝났다?

현대차증권

“다주택자 연령·기대수명 감안 2045년~2050년 집값 하락기 투자자산으로 매력 잃어갈 것”

앞으로 20년 내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사실상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구수 감소와 다주택자인 베이비부머들의 상속이 맞물리는 2045년 안팎부터는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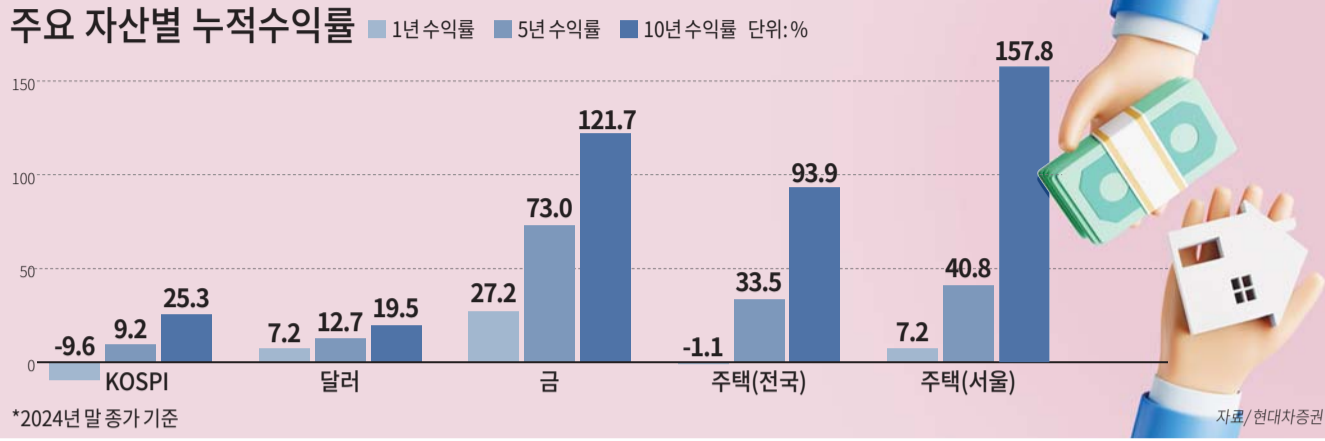
10일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국내 가구 수 감소가 2040년경부터 시작되며, 다주택자의 연령 분포와 기대수명 등을 감안해 2045년~2050년이 주택 가격 하락기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에서 집, 특히 아파트는 인기있는 투자자산 가운데 하나다. 주택의 65% 안팎이 아파트로 거래하기가 쉬웠으며, 꾸준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뤄지며 높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었다. 다주택자는 전세라는 특수한 임차방식을 통해 남은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

실제 수익률도 높았다.

작년 말 기준 10년 누적 수익률로 보면 서울 주택이 157.8%로 금 수익률(121.7%)을 크게 앞질렀다. 서울만은 못하지만 전국 집값 상승률 평균 역시 93.9%로 국내 주식은 물론 미국 달러 수익률도 앞섰다.

그간 큰 수익을 안겨줬던 집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주택자 보유주택, 전체의 32% 부동산 자녀세대 상속 시작시기 주택값 추세적 방향 꺾을 이벤트”

먼저 가구 수 감소다. 출생 감소와 고령인구 사망으로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1인 가구 등 가구 수는 오히려 늘면서 주택 수요는 굳건했다.

통계청은 ‘2022~2052년 장래 가구 추계’ 자료를 통해 전국 가구 수가 2041년 2437만 가구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2043년, 지방이 2040년 경이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가구 수 감소는 주택 수요의 구조적 감소로 우선 거래량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주택 가격 변동성이 축소되고 환금성이 낮아지는 등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임대가 어려워지는 것 역시 주택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집값 하락은 세대간 자산

손바꿈이 이뤄질 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23년 기준 주택보유자의 약 15%는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전체 다주택자의 약 55%는 50, 60대다. 대부분 1차(1955~63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로 해당 연령대가 평균 기대수명(2022년 기준 약 85.2세)에 도달하는 시기는 2039년

에서 2058년 사이다. 가구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2042년)와 겹친다.

신 연구원은 “자녀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는 상속세 문제와 주택 투자에 대한 매력 감소로 다주택을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본격적인 가구 수 감소 시점과 더불어 부동산 자산이 자녀세대로 상속되기 시작할 시기에는 시장에 매도물량이 전반적으로 증

가해 매도 강제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은 약 615만호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6%에 달했다”며 “다주택자들의 주택 상속과 이어져 발생할 현금화(매도)는 주택 가격의 추세적 방향을 꺾을 중요한 이벤트”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과 같은 부동산 장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 연구원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기업화, 체계화된 재건축 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며 “리노베이션 시 건축물의 가치를 최초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려 놓기에 각 주택의 사이클을 이어보면 결국 축소된 실거주 수요만으로도 일본 이상의 우상향 그래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여야, 상속세법 협의 속도내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 한목소리

민주당, 여당 제안 전향적 검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부문에는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상속세법 개정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생존권 촉구대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여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면 된다. 빨리 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이튿날인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이 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는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확대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항목부터 법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단식 농성 후 회복 중이라, 박 의원이 복귀하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 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실제 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syj@

한화생명

행복한 내 미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 찾기
- 여행 다닐 수 있는 체력 만들기
- 부담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대비하기
- 언제나 든든한 간병인 구하기
- 한화생명 케어백H간병보험 가입하기

간병과 돌봄,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는 간병보험을 찾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 080.365.6363

한화생명 케어백H간병보험 (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직군 위험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장 개시일은 가입 후 91일부터로 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년 또는 2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5-00896호 (2025-02-25 ~ 2026-02-24) 준법감사인확인필 CS 25-02-019

www.hanwhalife.com

성장의 변곡점... 수익성 다지고 베트남 시장 키운다

롯데카드

① 조좌진 대표 <끝>

롯데카드는 올해도 조좌진 대표가 진두지휘한다. 조좌진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취임했다. 올해 임기 6년차에 접어 들었다. 올해는 MBK파트너의 롯데카드 인수 7년차다.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매각 의지가 여전하다. 조 대표의 우선 과제가 롯데카드 매각 성사로 추려지는 이유다. 기업이미지 제고와 내실성장 등 과제를 안고 있다. 3연임에 성공한 만큼 임무가 막중하다. 시장에서는 적절한 '엑시트' 시기가 지났단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대표는 "2025년은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성장을 이뤄 나가는 첫해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3년 동안은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 내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강조했다.

◆ 견고한 성장세... 속제는 수익성 제고

지난해 3분기 기준 롯데카드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025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다. 지난 2023년 자회사인 '로카모빌리티'를 매각한 일회성 수익이 사라진 영향이다. 반면 연간 자산과 영업수익은 각각 9.3%, 8.6% 증가했다. 카드업계 업황이 쪼그라든 가운데 장기적인 흐름에서 성장 동력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올해 과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성 제고다. 그간 롯데카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개인화'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충성고객을 잇따라 확보했다. 법인 채널을 리뉴얼하고 앱을 전면 개편하는 등 사용자경험(UI) 제고에도 적잖은 공을 들였다. 이제는 신규 고객 유입 및 수익성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올해 본격적인 수익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510조3102억원이다. 연간 5.27% 증가했다. 반면 롯데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53조 5753억원이다. 연간 7.48% 증가하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협업을 통한 신규 상품도 대거 출시할 전망이다. 조 대표가 공격적인 영업을 시사하면서다. 지난해 롯데카드는 토스플레이스, 오케이몰 등 플랫폼과의 협업에 이어 라이나생명과 메리츠화재, 프리드라이프 등 보험, 상조업계와도 손을 잡았다. 협업을 통한 신상품 출시에 적극적인 행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 고객 확보 나서 법인 채널 개편·앱 리뉴얼로 UX 강화 초개인화 마케팅으로 충성 고객 늘려

법인 증자 완료, 소상공인 대출 출시 현지 결제 인프라 확대 위한 협력 강화 신용평가모델 구축, 우량자산 확보 박차

스타트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 재기 지원·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추진 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정책 큐레이션

보를 보였다. 조 대표의 영업 능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조 대표는 "2025년은 지난 성과에 안주하기보다는 한 번 더 퀀텀점프(Quantum Jump)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했다.

◆ 베트남 시장 성장 발판 마련

조 대표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전환 ▲디지털 전략 자산 성과 가시화 ▲신사업 발굴 및 확대 ▲베트남 사업 성장 기반 구축 ▲업무 방식과 문화의 재창출 노력 등 2025년 신년 전략 5가지를 발표했다.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롯데카드는 베트남 시장 진출 6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베트남 시장 공략의 분수령은 소상공인 영업이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은 7.09% 증가했다. 당초 목표치인 6.5%를 상회하는 수치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의류, 농산물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그간 롯데카드가 베트남 현지에서 쌓아놓은 자산은 소상공인 영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롯데카드는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에 937억원 규모의 증자를 완료하면서 몸집을 키웠다. 이어 알리엑스(Allex) 및 이페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 상반기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대상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평가모델 구축 또한 숙원 과제다.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사업 초기 신용평가 모형 구축에 난항을 겪는다. 그간 롯데카드는 직장인과 공무원 등 우량회원 중심 영업을 펼쳤다. 연내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우량자산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조 대표는 "중장기적 성장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시발점이자 첫해가 2025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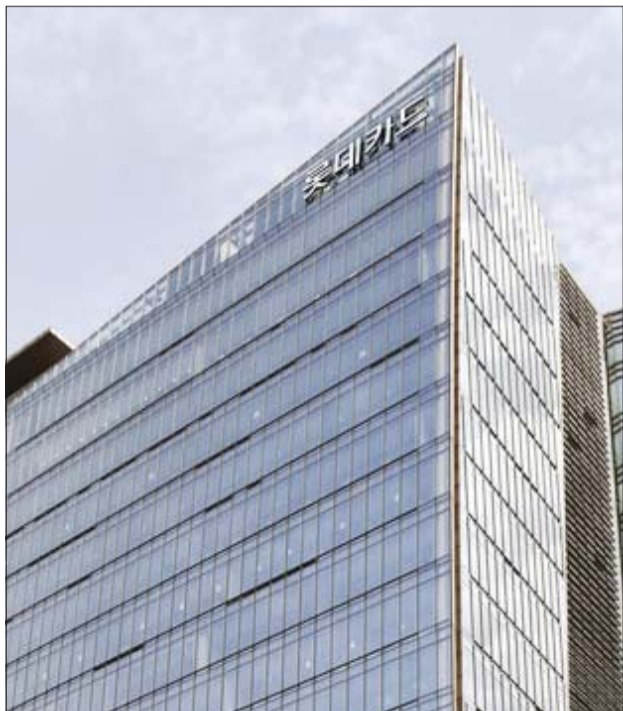
◆ 브랜딩이 생명, 사회공헌 지속

매각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다. 롯데카드의 사회공헌활동은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ESG경영 실천 기업을 지원하는 '핑크어스 파트너스 2기' 모집에서는 앞선 1기 대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소상공인과 상생협력도 지속한다. 지난해 7월 롯데카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대환대출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O2O플랫폼 진출 지원 등을 돕는다. 'ESG기업 육성'과 '상생'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10일 "앞으로도 롯데카드가 가진 데이터 분석 역량과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연령과 업력, 지역, 업종 등에 적합한 '정책 큐레이션'을 통해 상생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롯데카드 신사옥 전경.



K-패스엔로카 카드 플레이트 이미지.



한정옥 롯데카드 디지털카 본부장(오른쪽)이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카드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국정협의회,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결국 파행

소득대체율 43% 논의키로 했으나 野 “당내서 도저히 받을 수 없어”
추경안 편성엔 조금 진전 있었지만 與 “원점 되돌려... 논의할 수 없어”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정협의회에서 만나 국가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회담 결렬 소식을 알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은 “추경안 편성은 조금 진전이 있었다”면서 “추경안 편성을 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부가 참여하고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을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일단락되고 나서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지난번에 민

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며 “그런데, 오늘 와서 하는 이야기는 소득대체율 43%를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것에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며 “그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되면 추경안 편성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일단 회담은 파행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야 협의 회담은 파행됐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3.5%로 절충하되 현재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고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안이 자동조정장치 같은 기능이 있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 내용을 빼면 소득대체율 43%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협의회 시작 전 “국정협의회를 세번째 한다”며 “지난번에 논의한 특위(구성), 추경안 편성,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서 국정 여러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과 민생을 챙기려는 노력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마은혁 헌법 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로 인한 민주당의 반대로 국정협의회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측이 빠졌고 이날 회의엔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국정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파장으로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편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성사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전문위원장을 비롯한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불법 구속’ 관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명희(왼쪽부터) 사회민주당 부대표, 차근규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권택 법률위원장,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가 10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야5당 공동 고발장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與 “오동운 고발” vs 野5당 “심우정 고발”

〈공수처장〉

〈검찰총장〉

與 “내란죄 수사권 없는데 불법체포 국정조사의 장서 거짓말... 형사처벌”
野5당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檢, 내란수괴 앞에서 비루한 법아귀 댐”

죄 등을 들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 물이’를 목도했다”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봤다”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에 심 총장에 대한 야5당 공동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검찰이 불법적으로 무도하게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고 그래서 결국은 내란수괴가 현재 대한민국을 활보하게끔 한 매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산정은 수사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며 정치권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야가 10일 각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고발한다”며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또한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 처장을 고발하는 이유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소급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

野 정무위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 촉구”

금감원 방문... “尹 부부 연루 확인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0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금감원이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뤘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특히 100억원대 불법 수익이 은닉되지 않도록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 강준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정무위원 10명은 이날 금감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 이복현 원장이 삼부토건 관련해 주가

조작을 통한 10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윤석열 정부와 관계된 특정 세력이 연루가 됐는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 됐는지 분명하게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히 포럼에 참석했다는 발표가 나기 직전 삼부토건 거래량은 4000만주로 40배 늘어났다. 야권에서는 이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와 겹친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서예진 기자 syj@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경태, 정동영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트럼프發 파고 대비 ‘한미의원연맹’ 창립

국회 외교적 역할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치권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파고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초당적 한미의원연맹이 10일 뜻을 올렸다. 올해 한미동맹은 72주년을 맞았지만, 한미의원연맹이 창립된 것은 처음이다. 한미의원연맹은 미국 의회와 교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트

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보조금 축소 우려에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됐다. 한미의원연맹의 회장은 정동영 민주당,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간사는 김영배 민주당,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한미의원연맹엔 여야 162명의 의원들이 가입했다. 민주당 소속 98명, 국민의힘 소속 56명, 조국혁신당 소속 5명, 개혁신당 소속 1명, 무소속 2명의 의원이 입회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신한라이프, 통합법인 후 최대실적... 해외 사업은 '옥의 티'

작년 순익 전년 대비 15.1% 증가
보장성·시니어케어 성장 견인
베트남법인 3분기 순손실 70억
FC채널 확대 등 질적 성장 총력

신한라이프가 통합법인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질주하고 있다. 이영종 사장 취임 후 국내 무대에서는 순항을 이어가는 중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528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1년 7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합병해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신한라이프는 주요 금융주 계열 생보사 순위 1위 자리도 지켰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해 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한 2694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임에도 신한라이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신한라이프의 성장 요인으로는 이영종 사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전략이 꼽힌다. 이 사장은 취임 후 수익안정성을



신한라이프 사옥과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작은사진).

/신한라이프

위해 보장성보험 포트폴리오 강화와 요양 및 시니어케어 신사업 확대에 주력해 왔다.

보장성보험 판매 호조로 지난해 누적 연납화보험료(APE)는 각 영업 채널 모두 증가해 전년 대비 73.4% 성장한 1조579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4분기 대비로도 120.7% 증가했다.

아울러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를 본격 출범시켜 요양 사업에 진출했고 지난해 11월 분당데이케어센터를 선보였다. 올해엔 경기 하남시에 도심형 요양시설을 개소하고

오는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서울 은평구에 실버타운 건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한라이프는 "2024년 차별화된 고객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영업 모델을 도입하고 시장트렌드에 맞는 혁신적 상품을 적시에 공급해 출범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무대에서 순항 중인 이영종 사장의 신한라이프는 해외 사업에서는 아직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2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으나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옥의 티'다.

신한라이프 베트남법인은 2022년 41억6800만원, 2023년 35억8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3분기에는 순손실 규모가 69억5700만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영종 사장의 남은 숙제이자 주요 과제로 해외사업이 꼽힌다. 이 사장은 신년사에서 "글로벌 법인은 베트남 환경에 맞는 한국형 프로페셔널 FC채널을 구축하고 양적, 질적 성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엔 베트남법인 출범 이후 첫 번째 'FC채널 영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면서 영업력 강화의 첫 발을 뒀다. FC채널은 작년 2월 100여명으로 출범했으나 올해 540여명의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베트남 시장에서 점유율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베트남법인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므로 조직이나 영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사업 투자와 함께 영업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입원이력 없으면 할인 The라이트 건강보험

삼성생명은 최근 7년 또는 10년 이내 입원·수술이력이 없다고 추가고지(건강고지)할 경우 일반고지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삼성 The라이트 건강보험(무배당, 무해약환급금형)'을 오는 11일부터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강고지형 10년 기준 기존 일반 고지 상품보다 최대 25%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고지형 상품의 추가고지기간동안 장염, 요실금, 식중독과 같은 경증질환으로 인한 입원·수술은 예외로 두고 있어 완화된 인수 기준을 통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통합암진단특약', '통합뇌관련질환진단특약', '통합심장관련질환진단특약' 3가지 특약으로 26가지 폭넓은 암·뇌·심혈관질환 대비가 가능하다. 세부 보장별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이 가능하다.

DB손해보험 태아이상 산모 진단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DB손해보험은 지난 1월 23일 출시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와 '백반증 진단비'가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현재 국가바우처사업으로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업계 최초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를 개발했다. 임신부가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백반증 진단비'라는 담보를 통해 기존의 보험 상품들이 대부분 질병 발생 후 치료에 집중한 반면 중대질환 예방과 조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8월23일 '워터밤 속초' 타이틀 후원사로 참여

한화손해보험은 국내 초대형 워터 페스티벌인 '워터밤 속초 2025(WATERB OMB SOKCHO 2025)'에 타이틀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 23일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에서 열리는 '워터밤 속초 2025' 후원을 통해 여성들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응원할 예정이다.

워터밤 속초 2025는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압도적인 워터 퍼포먼스가 결합된 무대로 매년 관객들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는 국내 대표 여름 축제다. /김주형 기자

강남 신고가, 외곽은 하락... 서울 집값 온도차 뚜렷

강남·서초, 거래마다 최고가 경신
도봉 등 외곽, 70% 미만 가격 거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권은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종전 최고가 대비 70% 수준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늘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1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46%가 종전 최고가의 90% 이상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역별 차이는 확연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거래 중 30% 이상이 종전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도봉구에서는 거래 중 30%가 최고가 대비 70% 미만의 가격에서 이뤄지는 등 강남권과 외곽 지역의 격차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강남·서초구는 종전 최고가 대비 90% 이상에서 거래된 비중이 각각



'래미안원베일리' 전경.

/래미안원베일리 공식 홈페이지

86%, 87%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39%)와 서초구(34%)에서는 종전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강남권은 여전히 견조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뽕뽕한 채' 선호 현상도 강남권 집중을 더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40억원에 거

래되며 종전 최고가(35억1000만원)를 넘어섰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역시 전용 60㎡가 62억원에서 71억원으로 상승하는 등 강남권 주요 단지는 거래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외곽 지역에서는 분위기가 정반대다. 노원구(10%), 도봉구(13%), 강북구(15%), 금천구(15%) 등에서는 90% 이상 가격에서 거래된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도봉구와 노원구

는 거래 중 30%가 종전 최고가 대비 70% 미만 가격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매수세가 이어지는 등 국지적인 선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이 떨어져도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남과 외곽 지역의 격차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권 아파트 가격 강세는 주거 선호도, 학군, 교통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반대로 외곽 지역은 수요층이 제한적이어서 단기간 내 가격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강남권과 외곽 지역의 가격 차이는 앞으로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지원 기자 jjw13@

신한은행, 흠플러스 협력사 금융지원 실시

신한은행이 흠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납품대금 지급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흠플러스 협력업체에 ▲ 최대 5억 원 범위 신규 대출 지원 ▲ 대출만기 시 원금상환 없이 만기 연장 ▲ 분할상환금에 대한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특히 연체 중인 협력업체에게는 연

체 이자도 감면한다. 협력업체가 흠플러스에 일정 기간 납품한 사실만 확인되면 별도의 납품대금 지급 지연 확인 서류 없이도 신속한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흠플러스의 회생 신청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예보, 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 1815억 회수

상장 통해 발행주식의 10% 매각
매각 이후 잔여지분은 83.85%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의 유가증권시장 상장(IPO)을 통해 공적자금 1815억원을 회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보는 서울보증보험 상장을 통해 보유 지분(93.85%) 중 전체 발행주식의 10%(698만2160주)를 매각했다. 매각 이후 잔여지분은 83.85%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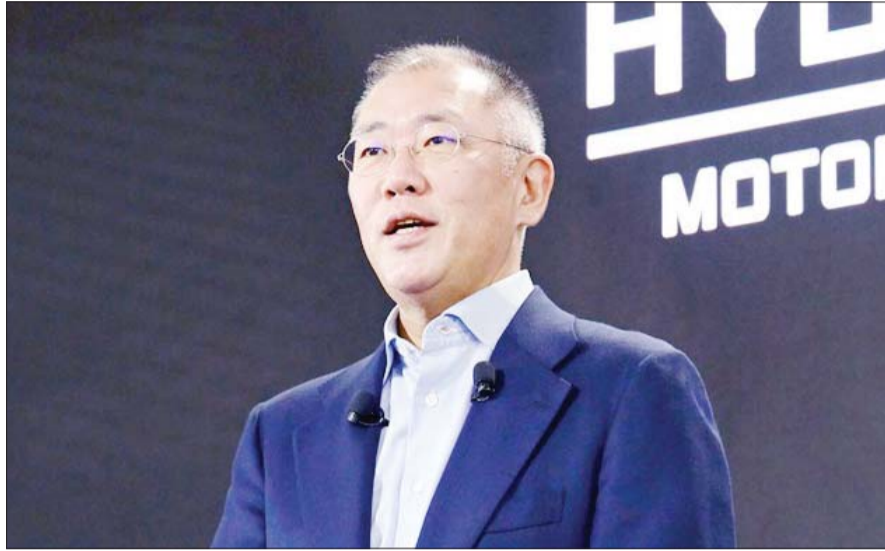
서울보증보험의 이번 상장은 100% 구주매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많은 투자자들은 서울보증보험의 안정적인 수익성, 성장 잠재력 등을 높이 평가하여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로 주주가 됐다.

예보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주주환원정책, 경영효율화 등이 충실히 이행되어 기업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대주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자율차 등 AI 집중하는 현대차... 美·中 시장 공략 속도전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기술 강화
美 에이브라이드와 무인택시 협력
조지아 생산 아이오닉5 연내 공급

중국 상하이에 AI 신규법인 설립
426억 투입, 시정부와 협력 강화



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1월 2024년 현대차그룹 신년회에 참석해 '한결같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한 지속 성장'이라는 새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 제조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술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현대차는 미국 자율주행 기술 기업 에이브라이드와 로보택시(무인택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에이브라이드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 아이오닉

5를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생산해 공급한다. 해당 차량은 올 연말 우버의 로보택시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으로 현대차가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동시에 로보택시

사업자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에도 차량 공급을 늘려 로보택시 상용화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반도체처럼 기술 기업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량을 제조하는 '자율주행차 파운드리(수탁생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알파벳의 자율주행 기술 자회사인 웨이모와도 로보택시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신기술 테스트에 최적화된 만큼 미래 기술력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중국 상하이에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 이 신규법인 '코모차이나'는 초기 자본금은 2억1300만위안(한화 약 426억원)이다. 이곳에서는 AI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 미래차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에 필요한 AI 기술 관련 상하이 시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시는 자율주행과 SDV를 통한 스마트 교통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총길이 2000km 이상의 도로를 자율주행차에 개방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가 이처럼 자율주행에 속도를 집중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시장조사기관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차 SW 시장 규모는 지난해 18억달러(약 2조6000억원)에서 2035년 70억달러(약 10조1000억원)

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의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며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으로 전환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생산해 올해 연말 현장 투입을 앞두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올 뉴 아틀라스'의 투입을 앞두고 테스트에 한창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일 올 뉴 아틀라스의 AI 학습 과정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연구진들이 아틀라스를 학습시키고 AI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가 부품 이동 등 단순 반복 작업에 투입되면 작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고 효율성과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연말 현대차 생산 거점에서 아틀라스의 시범 적용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애플 'AI 시리' 연기... 삼성 경쟁력 '파란불'

애플 기술력 의구심... 내년 출시 예상
스마트홈 허브 출시 연기도 불가피

애플이 기존보다 더 개인화된 인공지능(AI) 비서 '시리' 출시를 연기함에 따라 애플의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면서 AI 선두주자인 삼성 등 주요 경쟁사들에 힘을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삼성전자는 자체 AI 비서인 '빅스비(Bixby)'와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니(Gemini)'를 통합해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 기반 AI 기능을 스마트폰에 지원하고 있다. AI 스마트폰 시장의 강력한 경쟁사였던 애플이 한 걸음 물러나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파란불'이 켜졌다.

1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성명을 내고 "업그레이드된 시리 기능을 제공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초 이 기능은 다음달 iOS 18.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질 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연기로 스마트홈 허브 출시 연기도 불가피해졌다.

애플이 선보이려고 했던 시리는 사용자 맥락을 이해하고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지원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보다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용자들이 실사용할 때 시리가 음성 명령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원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AI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AI 훈련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해당 부서가 리더십 문제로 인력 이탈을 겪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애플은 공식적인 지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 법적 문제도 선행돼야 할 과제다. AI 비서가 더 개인화된다는 건 그만큼 사용자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애플은 올해 1월 미국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소송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했다. 합의금은 9500만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400억원 규모다.

대상은 애플이 시리 기능을 도입한

2014년 9월부터 2022년까지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다. 원고들은 시리가 음성 호출없이 활성화돼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 데이터를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리더십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그간 AI 스마트폰 선두주자인 삼성전자는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AI 스마트폰을 출시한 애플의 빠른 추격으로 입지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비중은 2019년 20%에서 2024년 18.4%까지 하락했다. 반면 애플은 2019년 13%에서 시작해 2024년 18.3%로 성장, 삼성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시장은 애플이 자체 AI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생성형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애플의 AI 출시가 연기되면서 삼성전자가 왕좌의 자리를 굳히는 데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전자,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 판매 1위

금액 점유율 20.1%, 11년 연속 1위 수성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이어 사운드바 시장에서도 판매 1위를 기록했다. 10일 시장조사업체 퓨처소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금액 기준 20.1%, 수량 기준 18.4% 점유율을 기록해 2014년부터 11년 연속 1위를 수성했다.

지난해 출시한 최상위 모델 HW-Q990D를 비롯한 다양한 사운드바 제품이 현장감 넘치는 음향, 삼성 TV와 연동하는 Q심포니 기능, 편리한 연결성으로 사용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글로벌 매체의 호평도 잇달았다. 미국 뉴스위크는 HW-Q990D를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로 선정하고 "올해 구매 가능한 사운드바 중 최고의 서라운드 사운드바를 자랑한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미국 IT매체 테크리처스(Techlicious)는 라이프스타일 사운드바 HW-S800D에 대해 "스타일과 디자인 두 가지를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이라며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로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음질과 서라운드 효과, 다양한 시나리오의 연결성을 강화한 신제품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구남영 기자

한화오션, 함정용 고내후성 차열도료 개발

해군 차세대 함정 성능 향상 기대

한화오션은 함정에 적용할 수 있는 업계 최고 성능의 도료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함정 운영에서 작전 능력과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오션은 국내 도료사와 공동으로 함정용 고내후성 차열도료를 개발하고, 관련 성능 평가를 내부적으로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내후성 차열도료는 함정 운용 시 자외선, 바람, 더위, 추위 등의 극한의 기후와 해양 조건에서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도료를 의미한다. 주

요 방산 선진국들은 함정의 스텔스 성능 개선을 위해 선체의 적외선 신호를 줄이는 고내후성 차열도료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화오션의 차열도료는 온도 상승의 주요 요인인 근적외선을 80% 이상 반사할 수 있다.

이는 업계 평균 근적외선 반사율 대비 최대 60% 우수한 수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내부 온도 증가도 최대 40% 저감시킨다. /양성운 기자

LS에코에너지, 필리핀에 IDC 전력망 공급

'STT 페어뷰 캠퍼스'에 전력케이블
동남아 IDC 시장 확대 교두보 마련

LS에코에너지가 동남아 데이터센터(IDC) 전력망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법인 LS-VINA가 필리핀 최대 규모의 IDC 'STT 페어뷰 캠퍼스'에 MV(중전압) 및 LV(저전압) 전력 케이블을 공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급을 계기로 LS에코에너지는 동남아 IDC 시장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STT 페어뷰 캠퍼스는 글로벌 IDC 전문기업 STT GDC가 필리핀 마닐라 인근 케손시티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다. 완공 시 총

124메가와트(MW) 규모의 정보기술(IT) 용량을 갖춰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STT GDC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산하 ST 텔레미디어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글로벌 IDC 운영 기업으로 싱가포르, 중국, 인도, 영국 등 전 세계 110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는 AI-클라우드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대규모 IDC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동남아 IDC 시장이 2023년 약 88억 달러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해민 기자 hyem@

판매부터 A/S 맞춤 지원... 中企 판로 확대에 160억 투입

중기부, 판로사업 등 3250개사 지원
 中企 전용 판매장, 올해 8곳으로 확대
 내수·수출 판로개척 성장 발판 마련
 온·오프라인 유통망 강화로 경쟁력 ↑
 중진공, 올해 온라인수출 참여사 모집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올 한해 총 3250개사에 대해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펼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기관들에 따르면 중기부가 올해 진행할 마케팅 지원사업은 ▲온라인 판로지원(400개사) ▲오프라인 판로지원(1200개사)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1200개사) ▲공동 A/S 지원(450개사) 등 4개 프로그램이며 총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관련 통합 공고를 11일부터 실시하며 대상기업 선정과정에서 여성기업(1점), 경영혁신 마일리지(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온라인 판로지원’은 소기업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 MD의 컨설팅을 제공하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 확대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고, 이커머스·홈쇼핑(TV, 데이터) 등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할 수 있도록 마케팅비용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최대 20%까지다.

‘오프라인 판로지원’은 자부담없이 100% 국비지원이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망에 입점해 안착할 수 있도록 초기 입점과 판촉 활동을 돕는다.

지자체가 주최하는 기업박람회 등과 연계한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바이어 상담을 통한 판로 개척 기회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제품만 입점할 수 있는 전용판매장을 운영해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전용판매장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목동 행복백화점, 현대백화점 판교점(삽인샵) 등에 설치해 6곳

을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 2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전용판매장은 다른 유통망 대비 낮은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며 판매 인력 등도 지원한다. 최대 3개 매장에 걸쳐 5개 품목까지 중복입점이 가능하다. 공동 A/S 콜센터를 운영, 소비자와 제품에 대해 상담하고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결해 수리를 지원하는 ‘공동 A/S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내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해 우수한 중소기업이 민간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판판대로’ 사이트 통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말까지 ‘2025년 온라인수출 플랫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는 중진공의 온라인 기업간거래(B2B) 플

랫폼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B2B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50개사를 선발해 고비즈코리아 내 제품입점, 온라인 마케팅, 해외바이어 매칭 및 무역 사후관리 등 온라인수출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기업간거래에서 온라인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만큼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 온라인시장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올해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인 ‘TOPS 프로그램’을 전담 운영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TOPS 프로그램’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민간(수행기관)이 직접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30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여기에는 총 10개 온라인 민간 플랫폼도 함께 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위기를 기회로’... K-철강, 美 시장공략·中 감산수혜 기대

쿼터제 폐지로 수출한계 사라져 긍정적
 中 철강감산 발표... 약 5000만 전망
 “하반기 안정세 예상, 실적개선 이룰 것”

철강업계가 중국산 저가 공세와 미국의 고율 관세에 초긴장 상태이지만 한편에서는 중국의 철강 감산과 대미 수출 쿼터 해제를 기대하며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가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방침을 못박았다.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했을 때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 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

제를 수용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t) 무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한국은 미국 철강 수입 시장에서 캐나다·브라질·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철강 제품을 팔고 있다. 미국 철강협회 기준 한국 철강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7%(2024년 기준)에 달한다. 미국 철강 시장에서 수입 시장 비중이 약 3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관세 부과와 더불어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업계의 고민이다.

중국산 후판 가격은 톤 당 70만~75만원으로 국산 후판 가격 90만~95만원 대비 25% 가량 저렴하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업체들에서도 중국산 후판을 찾는 곳이 늘어나 국내 수입량은 지

난 2021년 45만톤에서 지난해 138만톤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철강 제품 수요는 감소해 철강사 실적은 악화됐다.

철강업계에 들이닥친 ‘이중고’로 우려의 시선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철강업계는 ‘기회’라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2월 초)한 후 미국 철강 가격은 급등해 미국 열연코일 가격은 지난 1월 말 톤당 650달러에서 현재 850달러로 31% 상승했다. 관세 부과를 예상한 미국 철강업체들이 먼저 가격을 올린 것이다.

미국 철강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국내 제품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한 쿼터제 폐지로 수출할 수 있는 한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 확대를 통해 수익을 끌어 올릴

수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숨 돌린 상황이다.

또한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철강 생산량을 감축해 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구체적인 감산 목표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5000만t의 감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생산량(6350만t)의 80%, 중국의 연간 수출량(1억1106만t)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산 저가물량 공세에 골머리를 앓던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중국 상하이 월드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6~7일(현지시간) 열린 ‘월드 브레이크벌크 엑스포(WBX) 2025’에서 현대글로벌비스 홍보 부스에 참가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

현대글로벌비스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표 최대 중량화물 전시회 ‘WBX’ 참가

현대글로벌비스가 아시아 최대 브레이크벌크 전시회에서 글로벌 화주를 대상으로 영업력을 강화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 6일 중국 상하이 월드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1박2일간 열린 ‘월드 브레이크벌크 엑스포(WBX) 2025’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WBX는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중량화물(브레이크벌크) 관련 국제 전시회다. 올해는 전 세계 60개국, 150개 업체, 전문가 및 종사자 8000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글로벌 및 중국 현지 화주사를 대상으로 100척 이상의 자동차선과 벌크선을 활용한 해운사업 역량과 프로젝트 물류사업 현황 등을 소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글로벌비스는 자동차선 98척, 벌크선 21척을 운영하고 있다. 중장비, 발전설비 등 화물크기가 매우 크고 일정하지 않은 브레이크벌크의 특성을 고려해 두 가지 선형을 운용하고 있어 다양한 벌크 화물의 맞춤형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중대 간(E2E) 물류 솔루션도 핵심 역량으로 적극 알렸다.

/양성문 기자 ysw@

제약바이오 벤처 ‘AI·양자컴’ 생태계 조성

오영주 중기부 장관

연세대 국제캠퍼스서 간담회
 “국가 바이오 생태계 고도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약바이오 벤처 기업들을 위해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활용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10일 오후 인천에 있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연세퀀텀컴플렉스에서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업들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인천 연세대 국제캠퍼스 연세퀀텀컴플렉스에서 열린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후속 조치로 열렸다.

전문가들은 AI와 양자컴퓨터는 신

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우리 바이오벤처들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활발한 논의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신약융합연구원 표준희부원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AI신약개발 R&D 과제기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 사업단장은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양자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K바이오랩허브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 활성화, 인천의 제약기업과 벤처기업의 협업을 통해 지역 바이오 생태계 기회요인과 강점을 극대화하고, 일본 등 글

로벌 클러스터와의 협력을 강화해 인천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 직후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축된 양자컴퓨터 센터를 방문하여 연세대의 양자컴퓨터 활용계획을 청취하고 벤처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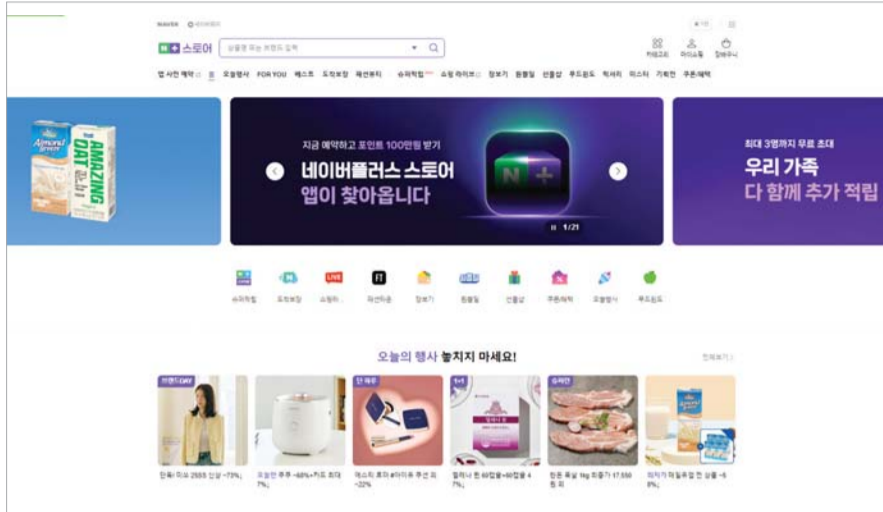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바이오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선 AI와 양자컴퓨터 활용은 새로운 기회로, 지역의 바이오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국가 전체의 바이오 생태계가 고도화될 수 있다”면서 “K바이오랩허브를 이곳 송도에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인천이 신약 개발에 특화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쇼핑앱 분리 출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로 초개인화 구현

쇼핑업계 '슈퍼앱' 전략 반하는 행보 AI 구매가이드 통해 혜택 등 추천 '온서비스 AI' 프로젝트 첫번째 사례 앱 독립 앞서 이벤트·마케팅 공세 설득력 있는 차별점에 성공여부 달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웹 브라우저(WEB Browser) 화면. 네이버는 12일 기존 네이버 앱(AP)을 통해 서비스 하던 네이버 쇼핑 서비스를 별도 앱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화면 캡처

네이버가 쇼핑 서비스를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출시한다. 최근 IT·B2C 쇼핑 업계가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 통합하는 '슈퍼앱(Superapp)' 전략을 채택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IT업계에서는 이 같은 네이버의 탈(脫) 슈퍼앱 전략을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바라보고 있다.

1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네이버는 오는 12일 인공지능(AI) 기반 쇼핑 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선보인다.

네이버플러스스토어는 AI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개성과 필요를 최대한 반영해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초(超)개인

화' 서비스다. 네이버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 앱에서 제공 중인 쇼핑 서비스에 추가 기능을 탑재했다.

현재 '에이아이템즈(AiTEMS)'라는 상품 추천 기능만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AI 구매 가이드'를 통해 혜택과 프로모션, 쇼핑 관련 콘텐츠까지 추천하는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는 보다 간편하고 최적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받고, 판매자는 판매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네이버의 '온서비스 AI(On-Service AI)'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례다. 네이버는 초개인화를 구현하기 위해 뉴스, 카페, 블로그 등 네이버 내 이용자의 활동 데이

터를 통합할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자사 인터뷰 영상에서 "사람들은 '뭐 사지?', '뭐 먹지?', '어디 가지?'와 같은 일상적인 질문을 반복한다"며 "이러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AI 기술을 접목했을 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번 앱 독립에 앞서 대대적인 이벤트와 마케팅 공세를 펼치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쇼핑 지원금을 지급한다. 과거적인 이벤트를 통해 출시 초기 사용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또, 지난달 개편한 자사 물류 솔루션 '네이버 배송(N배송)'과의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업계는 네이버의 이번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슈퍼앱 전략은 지난해 글로벌 IT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가 선정한 '10대 전략 기술 동향' 중 하나로, 사용자 특인(가뉘뚜기) 효과와 고객 유치 측면에서 강력한 장점을 갖는다. 가트너는 2027년

까지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다양한 슈퍼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DAU)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슈퍼앱은 24시간 이용자와 밀착할 수 있어 신규 서비스 출시와 비즈니스 확장에도 유리하다.

이 때문에 네이버의 탈 슈퍼앱 행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성공하려면 "이용자가 반드시 앱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 네이버 앱에서 쇼핑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별도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차별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IT 기업의 한 기획자는 "앱을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효용성을 넘어, 고객이 '이 서비스를 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네이버는 기존 네이버 앱이나 브라우저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를 사용자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CNS-코히어, 국내 에이전틱 AI 시장 공략 SKT, T멤버십 상시제휴 170곳으로 확대

코히어 에이전틱 AI 솔루션 '노스' 기업 맞춤형 서비스 공동개발 계획 스스로 판단·복잡한 문제 해결 가능



LG CNS 엔트루 컨설팅팀 민세훈 전무(왼쪽부터), 코히어 CEO 에이단 고메즈, LG CNS AI센터장 진요한 상무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LG CNS는 국내 에이전틱 인공지능(AI) 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AI 기업 코히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국내 기업 맞춤형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에이전틱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변하고 보고서를 생성해주는 것을 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계획, 실행, 평가를 반복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예컨대 기존 금융 기업 AI 챗봇이 보험 상품 추천 관련 요청을 받았을 때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요약·생성한다면, 에이전틱 AI는 한 단계 나아가 인터넷에서 추가 정보

를 검색하거나, 해당 상품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담당자와 미팅 가능한 시간을 탐색해 예약까지 해줄 수 있다.

코히어는 2019년 구글 출신 AI 연구원들이 설립한 캐나다 기반 AI 유니콘(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사)이다. 엔비디아, 오라클, 시스코 등 글

로벌 빅테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현재 기업 가치는 약 5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LG CNS는 코히어의 에이전틱 AI 솔루션 '노스'를 도입해 기업 맞춤형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에버랜드, 메가커피 등 추가 할인, 적립 혜택 제공

SK텔레콤이 여러 기업들과 T멤버십 신규 제휴를 체결해 상시 제휴 브랜드가 170개에 이르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휴를 체결한 곳은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메가 MGC 커피, 삼다수 등이다.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를 갈 때 SK텔레콤 고객은 동반 3인까지 최대 4명 이용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은 40%, 동반 3인은 30% 할인이 적용된다.

또 메가 MGC 커피에서 T멤버십 VIP 고객은 20%, 골드와 실버 등급 고객은 10% 할인·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은 없다.

삼다수를 구매할 때는 무라벨 생수 제품을 구입할 때 10% 할인이 제공된



SK텔레콤은 170개에 달하는 상시 제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SKT

다. T 멤버십에서 할인 쿠폰을 다운받아 제주삼다수 공식몰에서 쿠폰을 등록하면 사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다양한 업계와의 제휴를 꾸준히 확대해 고객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멤버십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지난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줄어

전년비 3.2%p ↓... 조사來 첫 감소

지난해 한국인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지난 일주일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사람은 2023년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69%였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지난 2018년 33.6%에서 2019년 47.1%, 2020년 66.2%, 2021년 69.7%, 2023년 72.2%로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지난해 69%로 한풀 꺾였다.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초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이 감소한 것이다.

헤비 유저의 이용 빈도도 줄었다. 지난 일주일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매일 이용했다는 응답은 2023년 33.3%에서 작년 30.8%로 2.5%포인트 떨어졌다.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용률과 평균 이용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20대 89.3%, 30대 85.1%, 40대 75.9%, 50대 69.2%, 60대 58.5%, 70대 이상 34.1% 순이었다.

평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빈도는 20대 5.1일, 30대 4.9일, 40대 4.1일, 50대 3.6일, 60대 2.9일, 70대 이상

1.6일로 조사됐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유튜브가 68.6%로 1위를 차지했다. 네이버NOW(네이버TV)가 두번째로 높은 7.1%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유튜브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아프리카TV(3.9%), 카카오톡TV(2.7%), 트위치(0.5%), 치지직(0.2%)이 뒤를 이었다.

OTT 서비스 이용률도 쪼그라든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지난 일주일간 OTT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비율은 37%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응답자들이 지난 일주일간 이용한 OTT 서비스는 넷플릭스가 30.7%로 가장 많았다. 티빙(11.5%), 쿠팡플레이(8.7%), 디즈니플러스(6.2%), 웨이브(4.8%), 왓챠(1.1%)가 그 다음이었다. /김현정 기자

LG U+-AWS, AI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AX 얼라이언스 전략' 공동추진

LG유플러스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10일 AWS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5' 현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 AI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AI) 얼라이언스' 전략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형 소버린(주권) 클라우드 개발 ▲AI 플랫폼과 솔루션 개발 ▲AI 컨설팅 등 분야에서 협업을 약속했다.

양사는 'AX 얼라이언스' 전략의 첫 단계로 국내 공공·금융·첨단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소버

린 클라우드'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소버린 클라우드는 특정 국가의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며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의 저장·처리·운영 등을 해당 국가 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국내 기업은 소버린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 통제권과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다.

양사는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LM)인 '익시젠(ixi-GEN)'과 AWS의 대형언어모델(LLM) '노바(Nova)'를 최적화하고 국내 기업 고객들이 AI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워크 에이전트(Work Agent)'를 공동 개발한다. 워크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AI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국내 기업도 빠르게 AI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현 기자

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57% '굉충'... 업황 회복 기대감

1분기 합산 영업익 1조5514조 추정
한국투자 3874억, 업계 최대실적
대체거래소 출범, IB 업황개선 등
증권사들 수익구조 탄탄해진 결과

국내 주요 증권사 5곳의 1분기 영업 이익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들어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다 대체 거래소 출범, 투자은행(IB)부문 업황 개선, 최근 진행된 증권사들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수익 구조가 탄탄해진 결과다.

10일 금융 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투자,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대 증권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551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 분기(9868억원) 대비 57.21% 증가한 규모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은 자회사로 둔 한국금융투자가 387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삼성



ChatGPT로 생성한 증권사 수익 상승 이미지.

증권(3094억원), 키움증권(2949억원), 미래에셋증권(2907억원), NH투자증권(2689억원) 순으로, 대부분 2000억원을 웃도는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주식시장 강세와 국내 투자심리 회복이 증권사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20조원을 밑돌았던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반등했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2800억원으로 한 달 전(16조5567억원) 대비 28% 증가했다.

이같은 거래대금 증가는 대체거래소 출범의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낮아지고 거래시간이 연장되면서 거래

대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은 10개에 불과하지만, 이달 말부터 매주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800개 종목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별로 다른 최선집행기준과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을 선점하는 증권사의 유의미한 수수료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며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인해 증권사의 연간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최대 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중금리 하락세도 증권사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국고채 1년물, 3년물, 5년물 금리는 각각 지난해 4분기 평균 대비 16bp(1bp=0.01%포인트), 14bp, 13bp 하락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국채금리 및 여전채 금리 하락과 국채와의 스프레드 축소를 감안할 때 증권사들의 1분기 채권평가이익은 우수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환전 업무 허가 및 종합

투자계좌(IMA) 재정비도 증권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IM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가 정비되면 증권사의 자산관리 부문 수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IMA는 증권사가 개인 고객으로부터 예약받은 자금을 통합 운용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원금 보장 상품이다. 기존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달리 기업대출이나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2016년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IMA 사업을 허용했으나, 현재까지 인가받은 증권사는 없다.

강 연구원은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기대된다"며 "수신기반 확대가 기대되는 발행어음 및 IMA 추가 인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증권 업황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회계감사 다시 공인회계사 전담... "투명성 확보, 환영"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세무사 참여 배제 조례개정안 통과
간이한 검사→엄격한 회계감사로

서울시의회가 6700억원규모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에서 세무사 참여를 다시 배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은 22조원 규모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AP)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데 대해 "제11대 서울시의회의 회계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기존의 '간이한 검사'가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의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업비 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회계감사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2022년 4월 제10대 서울시의회는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개정안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당시 "지방자

치법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가 감사 수준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학계, 회계업계, 시민사회 및 언론 등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회계검증이 간소화될 경우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민간위탁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조례 개정

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공·비영리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간이 검사' 방식의 민간위탁사업 회계검증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2년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개정이 추진돼 왔으나,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치로 인해 엄격한 회계감사 방식으로의 복귀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세무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허정훈 기자 zelkova@

김동준 키움PE대표 키움증권 이사회 합류 경영승계 작업 본격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준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가 키움증권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경영 승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2018~2021년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이현 키움증권 부회장도 함께 사내이사 후보에 올랐다.

현재 키움PE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김 대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키움증권에서는 별다른 직책 없이 비상근 사내이사로 이사회에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의 키움증권 내 담당 업무는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된 후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키움증권은 키움PE의 지분 100%를 확보했다. 지난달 키움증권은 한국정보인증이 보유한 400만주(40%)에 이어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던 200만주(20%)를 취득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김 대표의 경영 승계가 본격화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미국 몬타비스타 고등학교와 남가주대(USC)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코넬대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한 뒤 다우키움그룹 내 계열사인 사람인,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등을 거쳤다. 그룹 내에서 미국 전문가로 꼽히는 김 대표가 키움증권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연내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인 키움증권의 미국 법인 신규 설립 또는 인수·합병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원관희 기자

중국·홍콩 증시 반등... 올해 ETF 수익률 1~6위 中 상품

차이나항셱테크레버리지(합성 H) 수익률 평균치의 2배 넘는 66.89% "딥시크 부상에 기술주 재평가 이뤄져"

기술주 강세 속에 중국·홍콩 증시는 반등하며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올해 수익률 상위권 대부분도 중국 투자 관련 상품이 차지했다. 수익률 1위부터 6위까지 중국에 투자하는 ETF로 줄을 세운 모습이다.

'TIGER 차이나항셱테크레버리지(합성 H)'의 올해 들어 이날까지 수익률은 66.89%로 압도적이다.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평균 30%대

의 수익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성과다. 해당 상품은 홍콩에 상장된 테크기업 30개로 구성된 홍콩 항셱테크지수(HSTECH)의 상승률을 2배로 추종한다. 레버리지 상품인 만큼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셈이다.

올해 중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성비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홍콩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홍콩의 대표 주가지수인 항셱지수는 올해 들어 7일까지 20.79% 상승했으며, 중국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도 22.27% 올랐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딥시크 부상에 기술주 재평가가 이뤄지면

서 '중국판 M7(매그니피센트7)'의 주가는 '미국 M7'의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며 "중국기업의 빠른 AI 응용 확산으로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축소해 가는 과정들이 중국 M7의 중장기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중국판 M7은 2023년부터 항셱테크 지수를 계속 아웃퍼폼(시장 평균 수익률 상회)했다는 부연이다.

'중국의 나스닥'으로 꼽히는 항셱테크 지수는 중국 혁신 성장 산업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30개로 구성된 지수다.

중국판 M7으로 꼽히는 샤오미, 알리바바, 메이투안, 비야디(BYD) 등의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35.12% 급등했다. 같은 기간



ChatGPT로 생성한 ETF 이미지.

미국 나스닥 지수가 5.77% 하락한 것과 상반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항셱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올해 수익률도 평균 30%로 높게 나타났다. ▲'ACE 차이나항셱테크' 31.96% ▲'RISE 차이나항셱테크' 29.68% ▲'TIGER 차이나항셱테크' 28.82% ▲'KODEX 차이나항셱테크' 27.79% 등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고용보험 가입, 21년 만에 최저 구인은 줄고, 구직자 28% 급증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 동향
2월 신규구인 6% ↓, 구직자 28% ↑
제조·건설업 등 내국인 취업 감소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기록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신규 구인은 줄었으나, 구직자는 증가하며 구직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8만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명(1%) 증가했다.

상시가입자는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둔화하는 추세로, 1월 11만5000명(0.8%) 증가에 그쳐 2004년 1월(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2월엔 가입자가 소폭 확대됐지만, 2024년 2월 13만명대 이후 역시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개월 연속 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4000명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줄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63만5000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지만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를 지속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숫자는 153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 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5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초반에는 건설업 수주량이 늘어 시차를 두고 좋아질 수 있다고 봤으나 지난해 말부터 수주량과 기성액이 감소해 올해 건설업 전망은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각 6만4000명, 6만3000명, 18만6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10만7000명, 5만2000명 줄었다. 29세 이하와 40대 가입자 감소는 각각 32개월,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천 과장은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며 "30대는 2차 베이비부머 세

대가 포함돼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구인은 감소한 반면, 구직자는 늘어 구직난은 심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고용행정포털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6.3%) 줄었으나, 신규 구직인원은 43만1000명으로 9만6000명(+28.5%) 증가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728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09억원(11.5%)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25.1%) 증가했다. 증가 인원 중 건설업 신청자는 6000명이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저가 파우더 등 인체 안전성 기준 '충족'

소비자연맹, 14개 제품 안전성 평가

시중에 판매되는 반값 이하의 저가 파우더·팩트·에어쿠션 제품도 인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시험평가 결과 14개 제품 모두 중금속, 미생물이 불검출돼 안전성 기준에 적합했고, 내용량도 표시량에 적합했다. 제품에 동봉된 퍼프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알러지성 염료의 안전성 테스트 결과도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파우더 5개 제품은 '탈크' 성분이 함유돼 3세 미만 아동과 여성의 생식기 부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크는 흡수성이 뛰어나 화장품에 사용이 허용돼 다양하게 사용되나, 유럽연합에서는 흡입 가능성

이 우려돼 주의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규정에 따르면, 탈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석면이 함유된 탈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조사대상 중 1개 제품의 경우 '탈크 등 5불검가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라고 표시한데 대해 소비자연맹은 '탈크가 첨가된 타 제품이 유해하다고 잘못 인식시킬 수 있어 해당 업체에 광고 내용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항기 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플라스틱계열이기 때문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는지 공급할 것"이라며 "모두 불검출됐고 특별히 알러지성 염료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1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기능상 차이가 없으니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원하신다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폴리텍대, 새 슬로건 '푸른 미래를 열다'

'국가대표 기술교육' 비전 선포

한국폴리텍대학이 '푸른 미래를 열다, 국가대표 기술교육'이란 새로운 대학 슬로건을 10일 공개했다.

새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가며 대한민국 대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세계 최고 공공직업교육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디자인콘셉트는 중앙에 솟아오르는 푸른 선을 통해 기술교육으로 열어갈 밝은 미래를 강조하고 상단에 떠오른 나무 형상은 폴리텍대에서 이뤄나갈 성장과 결실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같이 공개한 서브 슬로건은 '기술로 준비된 내·일'로 기술교육을 통해 국민이 '내일(Tomorrow)'과 '나의 일(Job)'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 고

용 기회를 만들겠다는 중의적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슬로건은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선도해 국민과 미래를 잇는 일자리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반영했다.

이철수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은 지난 57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교육대학으로서 300만명이 넘는 핵심 산업인력을 양성해 왔다"며 "이번 슬로건을 통해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폴리텍대학에서 푸른 미래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대표 직업기술교육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3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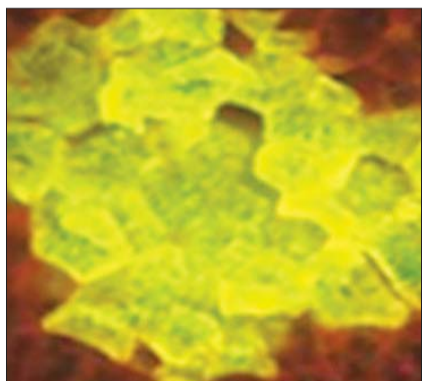
농산 부산물로 친환경 산업 키운다

농진청, 기술이전으로 산업화 지원
연구개발·기술 보급에 박차 계획

농촌진흥청이 국유특허권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나선다. 현장의 기술 수요를 수렴해,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0일 친환경 소재 개발업체 루츠랩을 방문해, 기술 이전 성과를 들여다보고 농산 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기술 실용화는 농진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유특허권 기술을 발명하면 업체나 개인이 특허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아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허락한 조건 범위 안에서 누구나 특허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 실시권은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한 배 석세포. /농진청

특히 최근엔 천연 소재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배 부산물인 석세포를 활용한 가공소재와 천연연유제, 소화제 등으로 특허 출원을 마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 상용화하고 있다. 권 청장은 "버려지는 농업 자원을 새로운 소재로 탈바꿈시키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업체가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농진청은 배 석세포가 피부 각

질이나 치태(플라그) 제거 등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천연소재로서의 우수성을 입증 바 있다. 루츠랩은 농진청이 개발한 '효율을 증가시킨 석세포 분리방법'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고 농진원의 공정 고도화 지원을 기반으로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루츠랩은 착즙박, 유과, 낙과 등 배 부산물을 대량 수집·건조하는 체계를 갖추고, 고순도 석세포 추출과 석세포 입자 크기를 조절하는 분말화 기술 공정을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미세플라스틱 대체 원료를 대량생산하고 세안제 상품을 선보였고 최근에는 감귤박으로 만든 사료 제조 기술도 개발했다. 김명원 루츠랩 대표는 "농산 부산물로 화학물질을 대신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예산 지원 확대

환경부, 예산 편성·집행 설명회

환경부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설명회를 11일 정부 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정책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

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 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의 통합 시설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표준사업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타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사업비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시설 규모, 운영 방식, 설비 구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사업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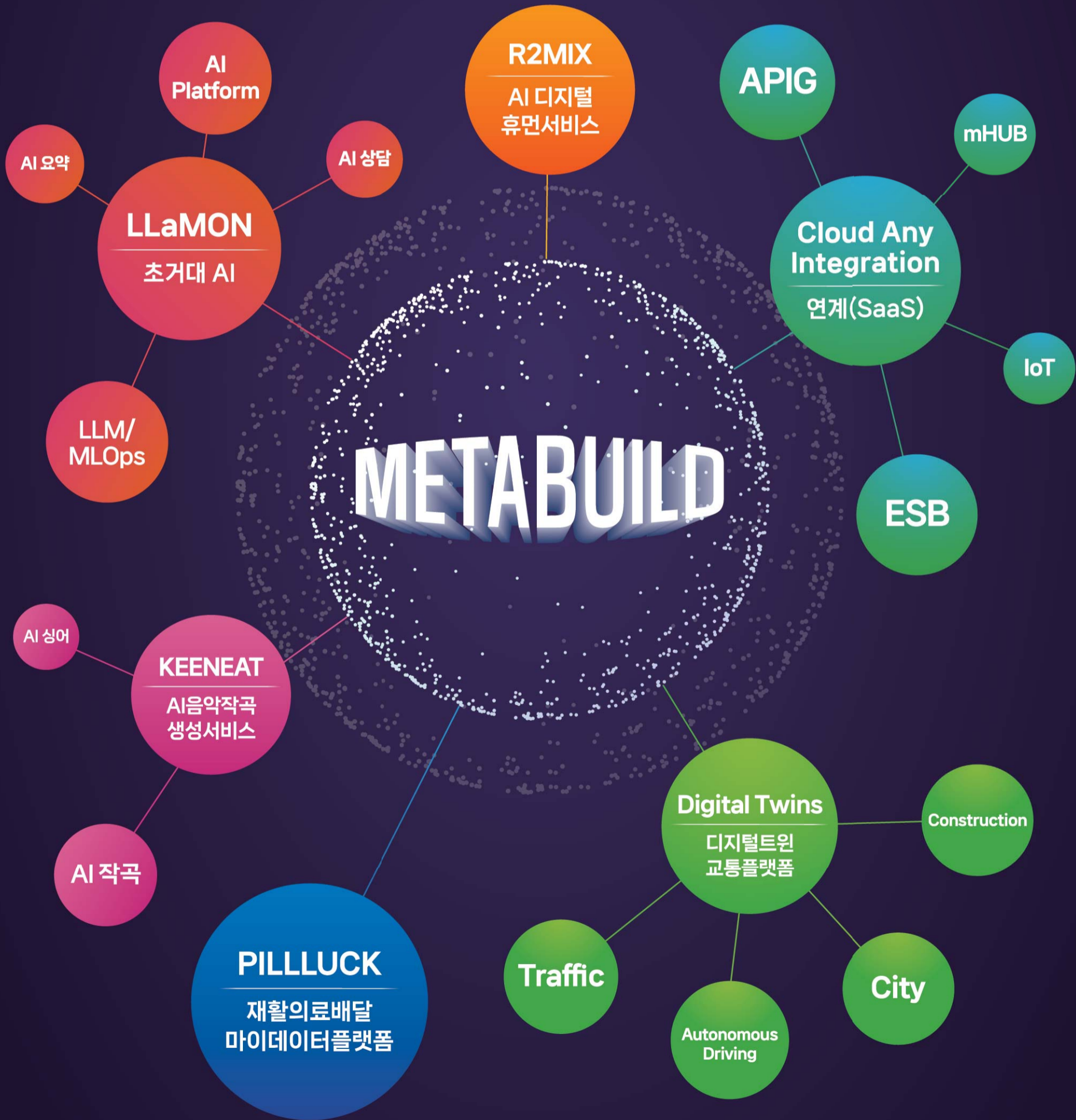
/세종=김연세 기자



AI · Cloud · 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연계통합 미들웨어 ·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경북도, '지역특화 비자사업' 대폭 확대... 外人 1281명 유치

내년 9월까지 참여 外人 모집 한국어능력 2등급 이상 등 필요 인력난 사업체 도움, 장기정착 계기

경북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경북도는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줘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해 2022~2023년 290명, 2024년 387명의 외국인에게 도내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을 추천했고, 올해는 지역우수인재(F-2-R) 781명을 배정받아 2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비전문취업(E-9), 선원



경북도청

취업(E-10), 방문취업(H-2)도 지역특화형 비자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이 신설되면서 500명 배정 인원이 추가돼 모두 1281명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지역우수인재(유학생)와 숙련기능인력(근로자) 및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가 대상이며, 지역 인제는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요건 등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특화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들은 인구 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도지사 추천을 받아 관할 출입국에 거주(F-2-R)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은 최근 10년간 E-9, E-10, H-2로 2년 이상 체류한 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현재 근무처에서 합

법적으로 근로 중이고, 연봉 26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2급 이상 요건을 갖추면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2년 동안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와 비인구감소지역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도 추천 대상이다.

경북도는 이 사업이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하기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도 지역사회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 사업에 참여한 도내 산업계의 만족도가 높고, 사업지역에 정착을 시작한 외국인들도 미래가 생겼다며 좋아한다"며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순천시

日 관광객 여행지로 '인기'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여행업협회(JATA)가 공동으로 선정한 '한국절경 30선'에 순천의 대표 관광지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이 포함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절경 30선'은 일본여행사 한국상품전문가가 대한민국 관광 공모전(사진 부문) 수상작 중 지역 접근성, 주변 관광지 연계성, 지역 대표 음식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호남 지역에서는 순천 3, 여수 1, 전주 1, 완주 1, 진안 1개소가 선정됐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광주시

미식의 도시 대표맛집 50곳 선정

광주시가 '미식의 도시'를 대표하는 맛집 50곳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보리밥, 육전, 돼지갈비, 꽃게장, 빈대떡, 생고기비빔밥 등 '2025 광주맛집' 50곳을 선정해 현판을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선정된 광주맛집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광주 미식 가이드'를 제작해 관광객안내소, 호텔, 주요 관광지에 비치할 계획이다.

'광주 미식 가이드'에는 맛집에 대한 설명과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휴무일 등 정보와 음식 사진 등이 수록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울산시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사업 준공

북울산역 일원에 버스, 택시 등 환승 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 중이었던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 사업이 준공된다.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북울산역 환승 체계 개선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북울산역 환승 체계 개선 사업은 오도밸리리과 북울산역 간 진출입로 개설과 보행육교 설치, 버스, 택시 등의 정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원 중 국비 21억원과 시비 66억원이 투입됐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남해군

'꽃 피는 남해' 행사 열린다

경남 남해군이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이해 오는 28~29일 '나의 살던 고향은'을 주제로 '꽃 피는 남해' 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행사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춘 총렬사 광장 및 남해각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는 28일 오후 15시부터 시작된다. ▲국민고향 남해 오락관 ▲문화공연(바투카타, 통기타공연) ▲개막식 및 식전공연(삼동나타, 바투카타, 퓨전국악 황인아, 남해군 홍보대사 하동근, 남해대학교 나이트) ▲드론 라이트 불꽃쇼가 펼쳐진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글로벌 사우스' 지역 포함 유망 6개국 대상 신시장 공략 박차

기존 美·中 벗어나 대체시장 진출 해외 전시회·무역사절단 지원 확대

부산시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포함한 유망 6개국(인도, 말레이시아, UAE, 우즈베키스탄, 독일, 이탈리아)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신시장 공략에 나선다.

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주요국 보호 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세계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미·중 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기존 제3세계, 개발도상국 등으로 불리던 국가들의 새로운 분류로, 북반구 고위도에 있는 선진국을 칭하는 '글로벌 노스'와 대

비에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에 분포한 나라들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포함한 유망 6개국에서 개최되는 해외 전시회와 무역 사절단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예산을 전년 대비 1억여 원을 증액해 운영한다. 오는 5월 태국 방콕 식품 전시회를 시작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등 유망 시장을 전략적으로 발굴한다.

또 시장 동향 분석을 제공하고 실질적 구매자 연결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부산 소상공인 수출 기업화 지원 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구시,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추진

4대 전략사업에 3000억 투입

대구시는 전통 주력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3000억 원을 투입해 대구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오는 2035년까지 첨단 섬유패션테크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섬유패션산업 고도화와 미래화를 위한 4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신산업 연계 Tech융합소재 육성 1000억원, ▲순환경제·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 고도화 1100억원, ▲파워풀 대구 글로벌 브랜드 구축 및

비즈니스 활성화 400억원, ▲융복합형 핵심 인재양성 500억원 등 4대 전략사업에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섬유패션 르네상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35년까지 5+T 핵심 선도기업(매출액 500억원 이상) 25개 육성, 섬유패션산업 생산액 10조원, 5+T 융합산업 수출액 30억달러, Tech리딩인재 1천명 양성을 달성하기로 했다.

섬유패션 르네상스는 지난해 11월 대구정책연구원이 세부계획안을 마련했고 대구시가 계획을 구체화해 섬유패션 르네상스 플랜이 만들어졌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포항시는 지난 7일 죽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매주 토요일 달마고도서 힐링해요"

오는 15일부터 한달간 진행

한반도의 봄이 시작되는 곳, 해남에서 봄맞이 걷기 축제가 열린다.

오는 15일부터 한달간 해남군 송지면 미황사와 달마고도 일원에서 '달마고도 힐링걷기' 행사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올해 달마고도 걷기 축제는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명사와 함께 걷기, 줍김 챌린지 등 4주간에 걸쳐 다양한 테마별 걷기를 운영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힐링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노르딕 워킹 체험도 마련해 즐거운 걷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월 15일 첫 걷기 행사에서는 개막

식과 함께 글씨당 김소영 작가의 캘리그래피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22일은 명사와 걷기 프로그램으로, 세계 3극점과 7대륙 최고봉을 모두 밟은 산악인 허영호 대장과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명사의 경험담을 함께 나누며 걷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29일은 스트레스를 줄이며 편안하게 걷는 힐링 걷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건강체크 부스 운영과 함께 달마고도 힐링 음악회가 열린다.

마지막 주인 4월 5일의 주제는 지속가능 걷기이다. 달마고도 구간 중 가족들이 함께 걷기 좋은 아동친화둘레길 걷기와 함께 '줍김 챌린지'가 펼쳐진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포항시, 자호천·현내천·가사천 정비 본격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포항시는 지방하천 자호천, 현내천, 가사천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016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8년 상반기 완료될 목표로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하천 정비로 집중호우 시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자호지구 하천 정비

6.10km와 교량 12개소 재가설 ▲현내지구 하천 정비 4.70km와 교량 8개소 재가설 ▲가사지구 하천 정비 4.53km와 교량 12개소 재가설을 포함한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7일 죽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밥처럼 부담없는 한 끼로”... ‘건강빵’ 정규식단 만든다

제빵업계 ‘식사대용 빵’ 출시

제빵업계가 식사대용 빵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 주로 간식이나 디저트로 소비되던 빵을 정규 식단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점점 서구화하는 식문화 흐름에 발맞추는 동시에, 정체된 국내 제빵 시장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프리미엄 브랜드 ‘파라라벨(PARAN LABEL)’을 론칭하고, 전국 3400여 개 매장을 통해 건강빵(식사대용 빵) 대중화에 나섰다.

파라라벨은 빵을 더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즐기자 하는 고객들의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 80년간 축적된 제빵 기술과 R&D 투자를 통해 선보인 브랜드다. 파리바게뜨는 파라라벨을 통해 건강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누구나 빵을 밥처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동안 시중에 출시된 건강빵들은 식감이 거칠고 맛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수요가 크지 않았다.

SPC식품생명공학연구소는 이러한 편견을 깨기 위해 2020년부터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와 함께 한국형 노르딕(Nordic, 북유럽) 건강빵 개발을 위한 산학공동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4년여간의 연구 끝에 통곡물 발효종인



모델들이 건강빵 브랜드 ‘파라라벨(PARAN LABEL)’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SPC

파리바게뜨 ‘파라라벨’ 론칭 헬싱키대와 한국형 건강빵 개발 발효종 사용 베이커리 13종 선보
신세계푸드 건강빵 3종 이어 ‘유산균 쌀 식빵’ 신제품 출시
GS리테일 CJ제일제당과 협업 맥스봉·고메·스팸 활용 조리빵

‘SPC x 헬싱키 사위도우’와 ‘멀티그레인(통곡물) 사위도우’ 개발에 성공했다. 발효 과정에서 통곡물 빵의 거친 식감을 개선하고 장시간 부드러움과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다.

파라라벨은 이렇게 개발된 발효종을 사용해 만든 노르딕 베이커리 4종을 비롯해 고단백, 저당, 고식이섬유 등 영양

성분을 강화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제품 총 13종을 선보였다. 향후 쿠키, 케이크, 선물 제품까지 관련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 국내 매출 추이를 지켜본 뒤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마트 내 E베이커리 매장에서 건강빵 3종을 선보여왔다. 그리고 지난달 소비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4번째 제품 ‘유산균 쌀 식빵’을 선보였다.

해당 제품은 국산 가루쌀과 쌀겨 추출 현미유로 만든 식물성 음료 ‘다이스 베이스드(Rice-Based)’와 특허 받은 글루텐(Gluten) 분해 유산균으로 반죽해, 쌀의 은은하고 고소한 풍미를 살리고 유당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소화부담을 줄여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식빵 특유의 부드럽고 쫄깃한 결을 살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유산균 쌀 식빵. /신세계푸드



고객이 GS25에서 선보인 맥스봉소시지빵과 고메함박브랜드를 살펴보고 있다. /GS리테일

샌드위치, 토스트 등으로 즐기기도 좋다.

신세계푸드는 기존 판매해 온 ‘유산균 쌀 빵’ 3종(모닝롤, 바게트, 크로아상)의 인기에 주목해 고물가 시대 합리적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건강 식사빵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신세계푸드의 ‘유산균 쌀 빵’ 3종은 출시 이후 월 평균 판매량이 12% 증가하며 지난달 누적 판매량 60만개를 돌파했다. 특히 3종 모두 지난달 이마트 내 E베이커리에서 판매 중인 50여종의 빵 가운데 판매순위 10위권 내에 오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기록하고 있다.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삼시세끼를 모두 챙기기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편의점 식사빵 판매도 늘고 있다. 특히 젊은 소비자 사이 간편하고 가벼운 식사를 찾는 ‘스내킹’ 트렌드가 자

리 잡으며 판도가 바뀌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식사빵류로 분류되는 플레인형 양산빵(식빵, 베이글 등)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796억원에서 지난해 약 1598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CJ제일제당과 협업해 ‘맥스봉’ ‘고메’ ‘스팸’을 활용한 조리빵을 선보였다. 양사의 협업은 밥 대신 빵으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맛 뿐만 아니라 영양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건강·식사빵 출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할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늘고 이에 따라 시장 규모도 성장세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월드몰에 유통사 첫 ‘더바넷’ 팝업

롯데백화점, 20일까지 봄·여름 신상 공개 가방·액세서리 등 200여개 상품 준비

롯데백화점이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국내 패션 브랜드 ‘더바넷’ 팝업스토어를 국내 유통사 최초로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더바넷’은 지난 2021년 출시된 캐주얼 브랜드로, 클래식한 디자인에 섬세한 디테일을 더한 스타일이 특징이다. 최근 일본 도쿄 신주쿠 이세탄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일주일간 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오는 20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서 ‘더바넷’ 팝업스토어를 열고, 2025년 봄·여름 신



잠실 롯데월드몰 ‘더바넷’ 팝업스토어. /롯데백화점

상품을 단독 공개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가방, 모자, 액세서리를 포함한 200여 개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대표 제품으로는 ‘워크 재킷’, ‘집업 니트’, ‘볼캡’ 등이 준비됐다.

매장 인테리어도 감각적으로 조성됐다. 입구에는 유럽 상점을 연상시키는 꽃마차와 아치형 구조물을 배치했으며, 방

문객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둘러보고 착용할 수 있도록 피팅룸 4곳을 마련했다.

팝업스토어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구매 고객에게는 포토부스 이용권이 제공되며 주말에는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한정 수량의 생화를 증정한다. 또, 4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한정 수량의 슬더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운영측 영컬처팀 치프바이어는 “‘더바넷’은 현지점 젊은 고객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디자이너 브랜드 중 하나”며 “롯데백화점에서 다채로운 K-패션 브랜드를 지속 선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차별화된 콘텐츠로 트렌드를 선도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hy “월 작약 정기구독하고 사은품 받아요”

추첨 통해 ‘이자벨마랑’ 제품 증정

hy는 LF와 함께 ‘LF몰과 함께하는 봄맞이 페스타’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hy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결합한 혜택을 마련했다. 행사 기간 중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월’ 3종과 신제품 ‘월 작약’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거나 정기구독 신청 시 추첨을 통해 프랑스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 ‘이자벨마랑’ 제품을 증정한다.

히트 제품 ‘hy 케어온 관절토탈케어’를 정기구독 또는 15000원 이상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헤지스 면훈방 가디건’이 제공된다. ‘케어온 혈압케어’ 1박

스 구매 시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전원에게 LF몰 13%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LF몰에서도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다. 봄맞이 ‘아울렛 뉴시즌’ 제품을 2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월 작약’ 또는 ‘프레딤몰 금액권’이 포함된 랜덤 럭키박스를 증정한다. 기획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구매한 고객 3명에게는 프레딤몰 금액권이 추가 지급된다.

hy 마케팅 담당자는 “프레딤몰과 LF몰이 함께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퀴진케이 ‘한식 코스’ 등 스페셜 팝업

‘유용육바베큐연구소’와 맞손

CJ제일제당의 한식 셰프 양성 프로젝트 ‘퀴진케이(Cuisine.K)’가 유용육 소장과 손잡는다.

CJ제일제당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서울 강남구 소재 퀴진케이 레스토랑에서 독창적인 훈연 기법으로 유명한 ‘유용육바베큐연구소’와 함께 스페셜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한식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젊은 한식 셰프 육성에 힘쓰는 퀴진케이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한 유용육 소장이 먼저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스페셜 팝업은 최다빈 셰프, 김범수 셰프, 최어진 매니저 등 ‘유용육바베큐연구소’ 소속 영셰프 3인이 운영한다. ‘불과 훈연’을 주제로, ‘유용육바베큐연구소’ 대표 메뉴에 다양한 한국 식재료를

를 더한 7가지 한식 코스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훈연굴 토스트 ▲우설편채 ▲갈비반상 ▲대추아이스크림 등의 디너 메뉴와 여기에 곁들여 즐길 수 있는 전통주 페어링도 마련했다.

금요일에는 점심도 운영한다. ‘유용육바베큐연구소’의 인기 메뉴를 활용한 육계장 칼국수를 선착순 20그릇 한정 판매한다. 이번 ‘유용육바베큐연구소 X 퀴진케이’ 스페셜 팝업 레스토랑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11일부터 ‘캐시태이블’ 앱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이은정 셰프 ‘잭앤더베이글’ 출시

시오버터·무화과 등 4종 세트

신세계그룹 e커머스 계열 SSG닷컴이 국내 베이커리 전문가 이은정 셰프와 손잡고 ‘잭앤더베이글’ 4종 세트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은정 셰프는 베이커리 카페 ‘잭앤더’, ‘오너스그램’, ‘브레드바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미식회’ 등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SSG닷컴에 따르면, ‘잭앤더베이글’

세트는 플레인, 시오버터, 무화과, 초코브라우니 총 네 가지 맛으로 구성됐다. 특히, 초코브라우니맛 베이글은 SSG닷컴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한편, SSG닷컴은 프리미엄 식품관 ‘미식관’을 중심으로 단독 및 차별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서빈 밥소믈리에와 협업한 블렌딩 쌀 3종 ▲속초 디저트 맛집 설악젤라또 8종 ▲이노하스와 협업한 비건 간편식 10종을 통해 미식관을 강화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안재선 기자

중견 제약사, 대표 의약품 중심 성장세... 사업다각화 속도

보령 연간매출 1조... 선두 차지
HK이노엔 '케이캡' 중심 고성장
동국제약 화장품, 의료기기 공략
JW중외제약 연구개발 비용 늘어



보령 본사 전경. /보령

중견 제약 기업들이 외형 성장을 이뤄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낸다.

1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보령이 연간 매출 1조원을 넘겨 선두 주자로 올라서면서 K제약 외형이 커지고 있다.

보령은 지난 2024년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1조171억원, 영업이익은 705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728억원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8.3%, 3.2%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81% 급증했다.

보령의 호실적은 전문의약품 매출이 견인했다. 해당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6%에 이른다. 특히 항암제 부문에서 레거시 브랜드인 수(LBA) 전략을 펼쳐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다졌다. 보령은 미국 일라이릴리의 항암제 젠자, 알람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보령은 LBA 전략으로 인수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에도 역량을 쏟는다. 충남 예산공장에서 주요 항암제 생산을 내재화해 글로벌 시장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략이 확장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김정균 단독 대표 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고돼

향후 보령의 사업 방향성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김정균 대표는 지난 2022년부터 '휴먼 인 스페이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인류의 우주 장기 체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주 의학'에 집중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보령은 미국 민간 우주기업 액시엄 스페이스와 합작법인 블랙스페이스를 설립해 우주 관련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또 블랙스페이스는 보령의 특수관계기업으로 지난해 3분기 기준 310만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공시됐다.

HK이노엔, 동국제약, JW중외제약 등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령을 앞지르며 올해 1조 클럽 입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HK이노엔은 지난해 연간 매출 8971억원, 영업이익 882억원 등의 실적을 올렸다. 당기순이익은 616억원이다.

HK이노엔은 차세대 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속했다. 케이캡이 HK이노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2023년 14%, 2022년 11% 등으로 지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제30호 국산 신약인 케이캡은 국산

신약 가운데 가장 최단기간에 연간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경쟁력을 갖췄다. HK이노엔은 케이캡을 글로벌 국산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현재 미국에서 비미란성 식도염을 적응증으로 한 케이캡 임상 3상을 완료했고, 미란성식도염에 대한 임상 3상은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국제약은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동국제약이 최근 공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해 8122억원이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804억원, 623억원이다. 모두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기록해 각각 20.3%, 27.6% 확대됐다.

동국제약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비롯해,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사업 전반에서 고르게 성과를 내 왔다.

동국제약화장품 사업의 대표 브랜드인 '센텔리안24'의 경우, 핵심 성장엔진 역할을 한다. 2015년 4월 출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센텔리안24가 누적 매출액은 이미 1조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자회사 동국

생명과학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을 공략한다. 동국생명과학은 국내 조영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핵심 제품인 CT 조영제 '파미레이', MRI 조영제 '유니레이' 등은 유럽, 일본 등 전세계 25여 개 국가로 진출해 있다.

JW중외제약도 제약사 1조 클럽 후보로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JW중외제약의 지난 2024년 연간 매출은 7194억원, 영업이익은 825억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4%, 18% 줄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76% 급증해 676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JW중외제약은 연구개발 비용 증가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일회성 비용 소멸과 법인세비용차감 전계속사업이익으로 발생했다.

JW중외제약이 연구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지난해 3분기 기준 590억원 수준이다.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 수액제 등이 주요 매출 품목인 가운데, JW중외제약은 신약 파이프라인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A형 혈우병 치료제 '헵리브라' 후속 연구, 표적항암제 후보물질 JW2286, 통풍치료제 URC 102 등의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CJ올리브영 “월경부터 일상까지... ‘W케어’로 관리해요”

W케어 도입 2년 만에 5배 확대
자체업서 전문적 콘텐츠도 제공

CJ올리브영은 주체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여성들을 위한 브랜드 'W케어'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W케어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월경에 필수적인 W벨런스, 여성청결제 등 Y존을 관리하는 W클렌징, 속옷류를 포함하는 W웨어 등을 선보여 왔다. W케어 상품은 2022년 3700여 개에서 2025년 약 1만8000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22년 11월 W케어를 처음 도입하고 2년여 만에 5배 가량 확대됐다.

W케어는 여성들이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품군을 세부화한 것도 특징이다. 예를



CJ올리브영 강남타운점의 'W케어' 구역에서 고객들이 'W케어' 상품을 체험하고 있다. /CJ올리브영

들어, 생리대는 월경 일자나 활동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패드형 외에도 입는 생리대, 생리컵, 탐폰 등으로 구분된다. 속옷도 흡유어, 스포츠웨어, 니플패치 등으로 다양하다.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상품을 체험한 뒤 구매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

다. 피부에 직접 닿는 상품을 경험해 보지 않고 구매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문을 연 '올리브영N 성수'에 마련된 '월니스 에디션'은 여러 브랜드의 흡유어와 스포츠웨어를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올리브영은 여성 건강과 관

련된 전문적인 콘텐츠도 제공한다. 자체 앱에서 'W케어 서비스'를 강화해 손쉽게 접근하도록 설계한 것도 특징이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협업해 개발한 '스마트 예측 주기' 프로그램은 정확한 월경 주기를 알려준다. 고민 상담 서비스 'W솔루션'에서는 전문의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여성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가가 대답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리브영 W케어의 목표는 여성들이 월경기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건강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W케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질 유산균, 여성 비타민, 여성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주는 이노시톨 등 건강기능식품까지 카테고리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퍼펙팅 립컬러' 새로운 색상 '블룸' 선보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에서 '퍼펙팅 립컬러'의 새로운 색상 '블룸'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퍼펙팅 립컬러는 입술 전용 제품으로 자연스러운 발색과 밀착력을 갖췄다. 번들거림과 끈적임 없이 촉촉한 제형도 특징이다. 새롭게 출시된 '330호 블룸'은 본래 입술 위에 조화롭게 스며드는 차분한 분홍 계열 색상이다. 설화수 '상백톤업스 크림', '퍼펙팅 쿠션' 등과 함께 활용하면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천식·두드러기 치료제 '옴리클로' 美 품목허가

셀트리온은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쥘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맵)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 식품 알레르기,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미국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이번 허가에 따라 옴리클로는 유럽, 국내, 영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 이어 미국에서도 첫 번째 쥘레어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를 받으며 '퍼스트 무버' 지위까지 확보했다. 특히 미국 품목허가 신청의 경우, 옴리클로는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로 인정받았다. /이청하 기자

팜젠사이언스 '비타잉', 신세계면세점 입점

온라인 판매 도입으로 접근성 확대

팜젠사이언스는 자체 개발한 지속성비타민C 제품인 '비타잉'을 쿠팡에 이어 신세계 면세점 온라인몰에 공식 입점했다고 10일 밝혔다.

팜젠사이언스는 하루 한 알 섭취만으로 체내에서 최대 10시간 동안 비타민C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건강기능식품 '비타잉'을 지난 12월에 출시했다. 이 제품은 혈중 유효 농도를 오랜 시간 유지하여 흡수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비타잉'은 국내 최초로 천연 부형

제를 사용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1정당 810mg의 크기로 일반적인 제품(1000mg)보다 작아 복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팜젠사이언스는 기존 지속성비타민C 제품이 오프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했던 것과 달리, 온라인 판매를 도입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비타잉을 하루 한 알만으로 장시간 비타민C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삼성바이오로직스, 美 '디캣워크2025' 참가

총 50건 이상 비즈니스 미팅 예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는 17~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디캣워크 2025'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가 열리지 않은 해를 제외하고, 2016년부터 10년 연속으로 디캣워크에 참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사장 핵심 위치에 전용 미팅룸을 마련하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총 50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

존 립 대표도 직접 참석한다. 2023년

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디캣 워크에 참석하고 있는 존 립 대표는 이번 행사에서 업계 주요 인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사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론자,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등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기업들과 함께 디캣 워크 만찬 행사에 스폰서로 참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자리에 참석하는 2500명 이상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LOTTERIA™

감자연구소 못난이 치즈감자

외형만 못생긴 국내산 감자로 재탄생한
대만 야시장 스타일 감자 디저트



← 진하고 고소한 체다크림치즈소스!

* 상기 이미지와 실제 제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GS건설, AI 공사 메뉴얼 '자이북' 개발

GS건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공사 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이북 (Xi-Book)'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자이북은 5000페이지가 넘는 GS건설의 주택 공사 시공기준 표준 시방서, LH 시방서 등을 AI를 활용해 최신 기준을 알려준다. 품질 점검 시 서류나 파일을 통해 찾아봐야 했던 자료들을 AI로 학습된 자이북에 검색하면 수초만에 원하는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GS건설



롯데건설, 수도권 등 3개 권역에 안전점검센터 신설

롯데건설은 전국 현장의 모니터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권역과 영남권, 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안전점검센터를 신설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 7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수도권 안전점검센터에서 권역별 안전점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영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안전점검센터 센터장 등 롯데건설 주요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롯데건설



홈앤쇼핑, 코엑스와 中企 해외진출 지원한다

홈앤쇼핑이 코엑스와 함께 중소기업 해외진출 추가 지원에 나선다. 홈앤쇼핑은 코엑스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사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홈앤쇼핑

'푸른씨앗' 가입자에 172억 지원

근로복지공단 "가입범위 확대 노력할 것"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이하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 1만6000명과 근로자 5만2000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2024년도 월평균보수가 273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2025년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높은 수익률(2024년 누적 14.7%)과 가입 후 3년간 수수료 면제(2025년 가입시),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가입방식이 시중 퇴직연금과는 다른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 시행 후 2년 만에 사업주 2만3000명, 근로자 11만명 이상이 가입했고, 기금 조성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제네시스, 오로라를 품다... GV60과 떠나는 '북극 탐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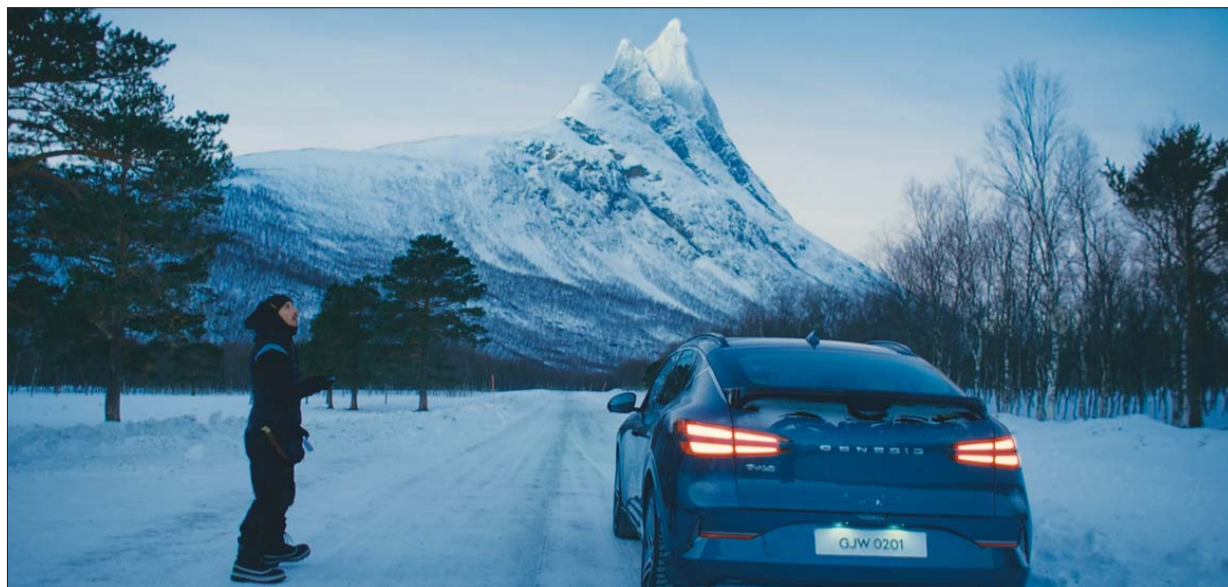
'오로라 탐험' 숏 다큐 유튜브 공개 브랜드 캠페인 통해 철학·방향 제시

제네시스는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로라 탐험을 소재로 한 숏 다큐멘터리 '오로라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오로라 탐험가 겸 사진작가 버질 레글리오니가 GV60 부분 변경 모델(GV60)과 함께 노르웨이 트롬소 등 북극 지방에서 오로라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담았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GV60은 신규 외장 색상인 '트롬소 그린'을 적용했다.

차량은 84킬로와트시(kWh)의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낮은 기온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스마트회생 시스템 3.0을 적용해 감속 및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재활용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궁극적으로



제네시스 숏 다큐멘터리 '오로라를 찾아 떠나는 여정'의 장면.

완전 전동화를 지향하는 제네시스의 브랜드 비전과 도전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제네시스는 전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혹한의 오로라 탐험을 통해 GV60의 우수한 성능과 내구성을 입증하는 한편 자연

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추구하는 제네시스의 가치를 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네시스는 오는 16일까지 서울 성동구 MM성수에서 특별 전시 'GV60 윈더 스튜디오'를 진행한다. 전시장 내부는 북극의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조명 연출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 오로라 영상을 상영하는 등 오로라 테마로 꾸며져 방문객들이 북극의 신비로운 빛을 간접 체험하며 GV60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마승철 나라셀라 회장, 모범납세자 부총리표창

성실 납세 의무 이행 높은 평가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인 나라셀라 마승철 회장이 제59회 납세자의 날 맞아 관세청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지난 6일 부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나라셀라는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나라셀라의 마승철 회장이 2022년 (사)한국주류수입협회 5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



지난 6일 성남세관장실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 오의석 나라셀라 전무(왼쪽)가 관세청 모범납세자 부총리표창을 대리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라셀라

후, 유관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시니어 와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와인 문화를 다양한 세대에게 전파하는 한편, 소외이웃을 대

상으로 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앞장서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트랜시스

'파트너스 데이' 개최

현대트랜시스는 7일 경기도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주요 협력사 대표들을 초청해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2025년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트랜시스 백철승 대표는 환영사에서 "올해는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경영환경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리스크 관리를 통한 위기 극복,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준비라는 두가지 전략을 협력사 여러분과 긴밀히 공유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권길주 영업부장, '판매거장' 선정

누적 판매 5000대 돌파

현대자동차는 수원지점의 권길주 영업부장이 '판매거장'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판매거장'은 누적 판매 5000대를 돌파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로 지금까지 승용 부문에서 단 20명만 이름을 올렸다. 권길주 영업부장은 2003년 입사 후 22년 동안 연평균 약 230대를 판매했으며 지난달 누적 판매 5000대를 달성했다.

권길주 영업부장은 ▲2008, 2010, 2012년 지점판매왕 ▲2009, 2011, 2013~2024년 전국판매왕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9회 연속 연간 120대 이상을 판매한 '탑클래스'에도 선정되는 등 우수한 경력을 쌓아왔다.

권길주 영업부장은 "입사 후 첫



현대차 권길주 영업부장.

사원증을 받았던 순간부터 부지런히 새벽부터 움직이며 여러 현장을 누볐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고 언제나 발로 뛰는 영업의 기본에 충실한 결과 판매거장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성운 기자

태광그룹 일주재단, 학사 장학생 모집

국내 대학생 60명 내외 선발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 3기 국내학사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국내 4년제 대학교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평점 3.0 이상(4.5점 기준)의 성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 인원은 60명 내외이고,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최대 5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 또는 생활비가 지원된다. 예체능 전공자를 포함해 모든 전공에서 고르게 선발한다. 지원 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일주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뤄지며 지원 동기, 인성, 역량 및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양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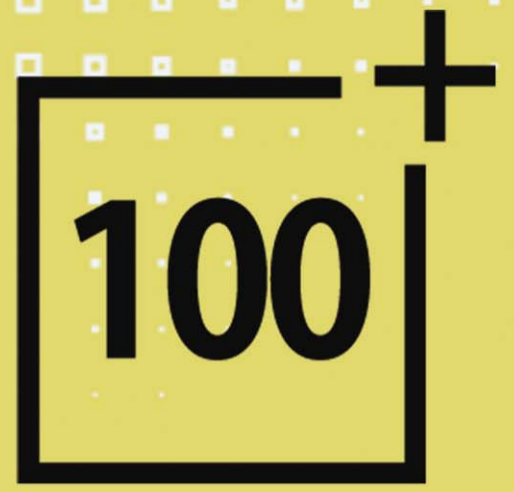
인사

- ◆**더벨** ▲마케팅팀장(이사) 정병준
- ◆**한국인터넷진흥원** ◊ 팀장급 보임 ▲ 보안교육운영팀장 김지연
- ◆**특허청** ◊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최귀남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박노익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학진 ▲국제교육과장 김동국
- ◆**기획재정부** ◊ 과장급 발령 ▲기업환경과장 박헌진

부음

- ▲**홍경순씨** 별세, 이화정(LX한국국토정보공사 차장)씨 모친상=9일, 전북대병원장례식장 5호, 발인 11일 오전 7시 30분. 063-250-1439
- ▲**윤숙련씨** 별세, 이치우(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씨 장모상=10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12일 오전 8시30분. 055-249-1700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5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
강연	14:50 ~ 15:25	염승환 LS증권 이사 :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15:25 ~ 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어보기
	16:00 ~ 16:35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은퇴 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내집마련은 언제?...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사 소개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컬리지 수료



염승환
 - LS증권 이사
 -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본부장
 -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호지영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 前 대신증권 WM추진부
 - 前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안전한 교통에 즐길거리 '풍성' 서울 관광, 코로나 직전 수준 회복

1월 외국인 관광객 90만명 방문 서울윈터페스타 등 볼거리 가득해 오세훈 시장 '세이프서울'도 효과 내년까지 관광객 3000만명 목표

올해 1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0만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102% 수준을 회복했다. 최근 대한민국 정치·사회적 이슈로 인해 '관광 분야가 위축되리라는 우려와는 달리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88만명이던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 규모가 지난 1월 90만명을 넘어섰다. 71만 명이던 작년 1월과 비교해도 약 27% 증가한 수치다.

◆서울윈터페스타 등 즐길거리

서울은 올해 1월 트립어드바이저 '나 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되고 뉴욕 지하철 서버웨이 푸싱(Su bway Pusing) 우려 없이 안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지하철 시스템'까지 주목받으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됐다는 게 시청 측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월대에서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

웠던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서울윈터페스타 등 준비했던 축제를 취소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 속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충분히 제공했던 점도 외국인 관광객 발길을 끌었던 것으로 봤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오랫동안 머 무르며 서울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말 '특별환대주간'을 운영하고 여의도·광화문에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등 편안한 서울 여행을 지원하기도 했다.

시청 관계자는 "비상계엄 이후 오세훈 시장이 '세이프 서울(Safe Seoul)' 홍보에 기울였던 노력이 유효했다"고

말했다.

◆내년 '3·3·7·7 관광도시' 목표... "안전하고 즐길거리 넘치는 관광도시"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일수 7일 ▲재방문율 70%의 '3·3·7·7 관광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어온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을 올해도 지속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서울이 혼자 찾아도 안전하고 즐길거리가 넘치는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연제나 축제'가 열리는 도시'라는 콘셉트에 걸맞은 사계절 축제도 준비 중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취업 가뭄에 '단비'... 삼성 등 대기업 채용

국내 주요기업, 상반기 채용 나서 삼성, 16개 계열사 신입사원 공채 현대차, 생산·제조부분 집중 모집



삼성전자 서초사옥.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국내 주요 기업들이 내수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는 등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 경영 환경은 악화됐지만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투자 확대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전자, 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생산·제조, 사업·기획, 설계 등 다양한 직군에서 인재 채용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래 사업을 위한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 전기차 분야 인재 확보 경쟁이 눈에 띈다.

우선 삼성 공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6곳에서 진행한다. 삼성은 지원서 접수 후 4월 온라인 삼성직무적성검사, 5월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삼성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 철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도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현대차는 오는 14일까지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등 총 3개 부문, 68개 직무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현대차는 향후 울산 전기차(EV) 전용공장 준공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으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 및 제조 부문 인재를 집중 채용할 계획이다.

기아는 경력 인재 채용에 집중한다. 기아는 10일부터 24일까지 ▲목적기반차(PBV) ▲정보기술(IT) ▲고객경험 ▲제조설루션 ▲특수사업 ▲재경 ▲오토랜드 광주 ▲오토랜드 화성 등 총 25개 부문 86개 직무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이는 전 부문에 걸쳐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우수 인재를 조

기에 확보하기 위함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지난달 스페인에서 개최한 '2025 기아 EV데이'에서 고객 최우선 가치에 기반해 PBV 시장을 선도하는 맞춤형 모빌리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LG전자도 최근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다. 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의 '기계·기구연구개발(R&D) 인력'으로 주방가전을 담당하는 '키친솔루션사업부', 세탁기·건조기 등 생활가전을 책임지는 '리빙솔루션사업부', 모터·컴프레서 등 가전 부품을 설계하는 '부품솔루션사업부', 차세대 가전을 연구하는 'HS연구센터' 등의 부서에서 각각 두 자릿수 인재를 선발한다. 17일까지 홈페이지 LG커리어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한화오션은 오는 23일까지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 및 졸업 예정자 대상 일반 전형과 글로벌 역량이 요구되는 글로벌 챌린저를 통해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일반 전형 채용 직무는 설계, 생산관리, 사업관리, 경영지원 등 크게 네 부분이다. 글로벌 챌린저 전형은 설계, 사업관리, 경영지원 등 3가지 직무에 한해 지원을 받는다.

재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미래를 위한 신산업 투자를 위해서도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학생 줄어도 의대 합격선 상승... N수생 영향

의대 합격선 97.9점... 3년째 증가 N수생 유입 등 최상위권 경쟁 치열

고3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N수생 유입으로 최근 3년간 의대 합격선은 계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일시적으로 고3 재학생 수가 전년보다 늘어나는 한편,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 수준 회복이 유력한 등 변수가 지속되면서 합격선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종로학원이 지난 3년간 의대 합

격선을 분석한 결과, 수시 내신 합격선이 학생부교과전형 기준 2022학년도 1.26등급에서 2023학년도 1.21등급으로, 2024학년도엔 1.19등급으로 상승했다. 정시 합격선도 국·수·탐 백분위 평균 기준 97.6점에서 97.9점으로 올라갔다.

반면 고3 학생 수는 2022학년도 44만 6573명에서 2023학년도 43만 1118명, 2024학년도 39만 494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전체 수험생 수가 줄어들어 산술적으로 입시 경쟁이 낮아져야 하지만, 최상위권 경쟁은 되레 더욱 치

열해진 셈이다.

이는 상위권 'N수생'의 대거 유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수능에서 N수생 규모는 ▲2022학년도 14만 9111명 ▲2023학년도 15만 7791명 ▲2024학년도 17만 7942명 ▲2025학년도 18만 1893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더해 2026학년도는 '황금데지띠' 영향으로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해에 태어난 학생들이 고3이 되면서 경쟁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현진 기자

"청년 맞춤 재테크, '서울영테크'서 배워요"

서울 청년에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 지원대상 2배 늘리고 프로그램 다양화

개인별 전문가 재무 진단과 1대1 상담, 실용 금융교육 등 서울청년들의 체계적 자산형성을 돕는 '서울영테크'가 지원대상을 기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프로그램을 세분화·다양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서울영테크2.0'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가동되는 '서울 영테크 2.0'의 경우, 우선 서울 영테크 사업에 민간·공공기관 7곳의 특화교육과 상담을 연계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금융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등 시너지를 창출한다.

청년자산증식 컨트롤타워인 '서울 영테크'가 재무 상담과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KB금융공익재단·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신한은행·신한카드 등 민간기관에서 자산형성 첫 단계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 경제·금융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청년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강의도 도입한다. 강의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강의 중 청년 자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청년을 위한 재무 기초 가이드 ▲미래유망산업 토크 보기 ▲내 인생 첫 부동산 강의 등 9개 과목을 우선 선정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9 | 해질 / 18:35

3월

11일 (화)

음력 : 2월 12일

수도권 날씨

4 ~ 1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1/16

동두천 0/16

가평 -2/16

파주 -2/15

서울 4/16

양평 0/16

인천 4/13

수원 3/16

용인 3/16

평택 1/1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中, 美에 2차 보복관세 시작...농축산물에 10~15% 인상
▲미 이민국, 컬럼비아대 시위 관련 팔 대학원생 체포...영주권 박탈 /사진 뉴스시

▲美특사 "하마스, 5~10년 장기 휴전 제안...몇 주 내 협상 성과 기대"
▲러, 미지원 끊긴 우크라 공세 강화...우크라, 수드자서 고립 위기

▲"프랑스, 러 동결자산 이자로 우크라군 무기 지원"...러 반발
▲中 주택장관 "부동산시장 하락에 제동...정책효과 나타나"



제빵업계
밥처럼 부담없는
식사대용 빵 선택
너



Life

중견 제약사
사업다각화
속도
L2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가치있는 내일 향해 걷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LS증권

2023년, 본격 사회공헌 활동 추진
매년 겨울, 쪽방촌에 연탄나눔 봉사
플로깅 활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지난 1월 9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은 김원규 LS증권 대표와 임직원 50여명은 리어카로 직접 연탄을 주민들에게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누구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추운 날씨에 힘들었지만 주민들이 반겨주셔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뻛고, 다음에도 연탄 나눔 활동에 꼭 참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LS증권은 환경(Environmental)과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 기업의 장기적인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된다는 ‘ESG 경영’을 펼치고 있다. ‘착한 척’하는게 아니다. LS증권은 “ESG가 곧 우리 사회의 공존전략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의 본격화

LS증권의 사회공헌 활동은 2023년부터 본격화됐다. 이전까지는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활동이 2023년부터는 분기별 정기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구체적으로 2023년 1월에는 영등포 쪽방촌에서 연탄나눔 봉사를 진행했고, 4월에는 관악산에서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이어 9월에는 여의도에서 플로깅을 진행했으며, 12월에는 다시 연탄나눔 봉사를 시행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탄나눔 봉사는 매년 겨울철에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매회 약 3000장의 연탄과 함께 김치, 이불 등을 임직원이 직접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탄뿐만아

나라생활에 필요한 물품까지 함께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플로깅(Plogging)은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이다. LS증권은 관악산과 여의도에서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플로깅 활동은 회를 거듭할수록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며, 회사의 대표적인 정기 봉사활동으로 자리잡았다.

LS증권은 2023년부터 탄소 감축을 위한 사내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기부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연탄나눔 봉사와 플로깅 등 기존의 정기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며 LS증권은 ESG 경영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 확대 및 새로운 시도

LS증권은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을 한층 확대하며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4월에는 여의도에서 플로깅 행사를, 10월부터 11월까지는 약 두 달간 ‘사회공헌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이 전사 차원에서 진행됐다면, 지난해부터는 리서치, 경영지원, 리테일, 홀세일, 투자은행(IB), 세일즈 앤트레이딩(S&T), 채권 등 여러 사업부를 5개 부문으로 묶어 각각 독자적인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했다. 이를 통해 보다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지난해는 LS증권의 창립 25주년이자, 사명 변경 및 LS그룹 편입 이후 새로운 비



LS증권이 지난해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에서 무장애길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LS증권이 지난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사업부별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 임직원 봉사활동 참여인원 4배 증가 자발적 참여 확대해 범위 넓혀갈 것

전을 내재화하는 시점이었다. ‘담대한 도전, 내일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LS증권(Let’s Start, Make Tomorrow)’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ESG 경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했다.

부문별로 진행된 주요 활동도 구체화됐다. 지원 부문은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에서 무장애길 보수 작업을 진행했고, 리테일 부문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기획했다. 홀세일 부문은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묘역 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IB 부문은 창덕궁에서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과 함께 태양광 랜턴 키트 제작 및 영등포 50플러스센터 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했다. S&T와 채권 부문은 단체 헌혈 행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각 부문이 직접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특히

임직원의 참여 인원이 이전보다 약 4배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가능해졌다.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동료들과 협동심과 팀워크를 다질 수 있어 의미 있었다. 사회에 기여하고 고객과 성장한다는 회사의 비전을 나눌 수 있었던 계기가 돼 뜻 깊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5년,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LS증권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원규 LS증권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연탄과 이불을 전달했다.

LS증권은 올해 현충원 묘역 정화, 벽화 그리기, 보육원 봉사, 쪽방촌 푸드마켓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방침이다.

LS증권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와 연간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활동 외에도 사회공헌의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함께 ESG 경영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지난 2023년 연탄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LS증권

메트로 한줄뉴스



▲양현준 13개월 만에 태극마크...홍명보호, 손흥민 등 A매치 명단 발표
▲파넬카킴으로 토트넘 구한 손흥민, 현지 평점 7~8점대 /사진 뉴시스

▲양민혁 선발 출격한 QPR 경기에서 인종차별 신고 접수
▲오현규, PK 극장 결승골...헝크, 덴더르에 1-0 승리

▲김혜성, 빠른공 공략해 2타점 적시타...“도쿄 개막전 여부는 미정”
▲배지환, 교체 출전해 3타수 무안타 1타점...시범 경기 타율 0.500